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영화를 활용한 소설 교육 연구

- 황석영, 「삼포 가는 길」을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채 성 희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영화를 활용한 소설 교육 연구

- 황석영, 「삼포 가는 길」을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채 성 희

영화를 활용한 소설 교육 연구

- 황석영, 「삼포 가는 길」을 중심으로 -

강진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채 성 희

인 준 서

채성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현대 사회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잉태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쏟아내는 영상매체의 시대이고 교육의 주 대상이자 목표인 청소년들은 이런 매체들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 '읽는 문화'보다는 '보는 문화'에 길들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읽는 문화' 특히 소설 등을 읽는 독서는 인간의 지성과 문명이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온 문화적 실천이다. 독서만이 인간에게 길러줄 수 있는 능동적 사고와 상상력, 그리고 삶을 성찰하는 태도 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설읽기는 첫째, 언어를 표현재료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언어 능력의 증진에 효과를 주고, 둘째, 인간의 삶을 다룸으로써 소설을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만남으로 개인의 정신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셋째, 개인적 주체성 확립에 도움이 된다. 넷째, 문화 계승과 창조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최근 소설은 해가 갈수록 외면 받고 있는 반면 새로운 매체로 자리 잡은 영화는 그 위세를 확장해가고 있다. 현대사회의 대중들은 문학 원전을 다양한 방식, 매체로 수용하고, 이를 보편화된 문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되면서 대중은 문학작품은 문자 언어로 된 작품만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영상 언어로 된 작품, 즉 영화나 TV드라마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문학을 수용하는 방식과 조건들이 달라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교육에 반영되고 있다. 문학교육에서 영상매체 활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다.

전반적인 국어과 교육현장에서도 교과서만을 통한 지식전달하기 수

업을 벗어나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영상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켜 집중도를 높이고 공동에게 친숙한 매체를 통한 토론교육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설과 ‘보는 매체’의 총아인 영화는 다른 장르임에 틀림없지만 서사구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영화는 그 탄생부터 지금까지도 소설에서 이야기를 빌려온 공생공존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소설 교육의 강화를 위해 국어 교육 과정에서 소설 교육에 대중매체 특히 영화를 활용한 수업 방안을 연구한다. 학습자에게 친숙한 영화를 교육현장에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영화 「삼포 가는 길」의 활용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소설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소설교육에 영화를 활용,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시키고, 그들이 친숙한 영상을 통해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다. 또 또래들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영화를 감상한 후 서로 토의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있으며 이런 활동이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아낸다.

영화는 소설에 나오는 배경이나 인물에 대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장면을 보여 주어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요소들에 대한 이미지와 형상화된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소설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또 영상화되면서 변화되는 사건이나 인물들의 갈등 등을 통해 소설과 영상매체의 비교를 통해 소설에 대한 심화 읽기가 가능해진다.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소설 교육 현장에 영화를 보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수용자인 청소년들이 소설을 좀 더 쉽고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 목적 | 1 |
| 2. 선행 연구 검토 | 5 |
| 3. 연구 필요성과 내용 | 10 |
| II. 소설 교육과 매체 교육 | 13 |
| 1. 소설 교육의 목표와 내용 | 13 |
| 2. 매체 교육의 목표와 내용 | 19 |
| 3. 매체를 활용한 소설 교육의 효과 | 27 |
| III. 영화를 활용한 소설 교육 | 32 |
| 1. 소설 교육과 영화 | 32 |
| 2. 영화 「삼포 가는 길」을 활용한 소설 교육의 실제 | 38 |
| 3. 수업 모형 | 65 |
| IV. 결론 | 80 |

I. 서론

1. 연구 목적

1960년대 초 미국의 문화평론가인 레슬리 피들러는 소설의 대중성을 염려하여 소설 장르에 사망선고를 내렸다.¹⁾ 이런 진단을 내린 데 주목한 것은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예술소설의 독자가 잠식당하는 현상이었다. 당시 인쇄술과 책이 뉴미디어에 타격을 받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역시 디지털 시대의 개막과 대중매체의 득세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문학 특히 소설의 죽음이 심각하게 진단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잉태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쏟아내는 영상매체의 시대이고 교육의 주 대상이자 목표인 청소년들은 이런 매체들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다양한 매체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고, '읽는 문화'보다는 '보는 문화'에 길들여졌다. 또 또래 집단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영상매체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2009년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녀는 1년간 각각 8.2, 8.6권의 교양서적을 읽었다. 소설이 이 교양서적 분야에 포함된 통계이니 한국의 남녀가 1년에 읽어내는 소설이 몇 편이나 될 지 계산 가능하다.

소설 등을 읽는 독서는 인간의 지성과 문명이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온 문화적 실천이다. 최근에는 영화나 TV, 인터넷, 게임 등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활동들이 비할 수 없이 다양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일상인들의 삶에서 독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 사

1) 구광본, 『소설의 미래』, 행복한 책읽기, 2003

실이다. 그렇지만 독서만이 인간에게 길러줄 수 있는 능동적 사고와 상상력, 그리고 삶을 성찰하는 태도 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²⁾

2009년 우리나라 15~49세 국민은 1인당 1년에 12.2편의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밝혀졌다.(영화진흥위원회 2009도판 한국영화연감) 특히 15~18세의 청소년층은 연간 약 14편의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에게 영화가 각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은 해가 갈수록 외면 받고 있는 반면 새로운 매체로 자리 잡은 영화는 그 위세를 확장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 TV의 대량 보급으로 성장과정부터 영상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이 소설이라는 ‘읽는 매체’보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보는 매체’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레슬리 피들러의 우려와는 달리 디지털 시대의 문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새롭게 구현되고, 문학의 개념 역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새로운 진단이다.

소설이 죽었다고 진단하는 전문가들은 대중매체를 문학, 소설의 죽음의 원인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나 대중매체 역시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대중매체도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한다.³⁾ 문학교육을 폭넓은 의미의 문화 활동⁴⁾이라고 전제할 때, 문학교육은 현대의 문화 환경, 대중매체의 작용 모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문학 활동이 독자적으로 창출되고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영역의

2)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② 국어』, 교육과학기술부, 2008, 196~197쪽

3) 박삼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문학교재의 개발방향」, 『문학과 교육』, 문학과 교육연구회, 가을 호. 1998

4) 김대행, 「문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문예중앙』, 가을호. 1994

문화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얽히면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대중들은 문학 원전을 다양한 방식, 매체로 수용하고 이를 보편화된 문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되면서 대중은 문학작품은 문자 언어로 된 작품만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영상 언어로 된 작품 즉 영화나 TV드라마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학을 수용하는 방식과 조건들이 달라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교육에 반영되고 있다. 문학교육에서 영상매체 활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다.

문학의 대중화, 전자화, 통속화를 문학정신의 타락, 사이버문학의 창궐로 보지 않고 문학의 도저한 생명력의 발현으로 보았던 것은 바로 문학교육의 해안이다. 문학이 쓰이고 유포되고 가르쳐지고 읽혀지는 행위 이 모든 것은 문학교육의 영역이며 이 모든 것을 문학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⁵⁾

문학교육은 문학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창조적 사고를 하고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문자 언어인 소설을 읽는 것은 제1의 중요성을 가지지만, 수용자의 매체 환경 변화를 적극 이해하여 영화를 활용한 소설 수업을 진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문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려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그들의 변화, 성장을 도와주는 것도 교육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미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매체 언어’를 새롭게 설정하며 매체에 대한 교육을 국어과 교육의 중요한

5) 김중신, 『한국 문학교육론의 방법과 실천』, 한국문화사, 2003

축으로 끌어들었다. 다매체 시대로 일컬어지는 언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매체 언어 역시 기호라는 점에서 국어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전반적인 국어과 교육현장에서도 교과서만을 통한 지식전달하기 수업을 벗어나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영상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켜 집중도를 높이고 공동에게 친숙한 매체를 통한 토론교육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문학의 위기는 시대 사회적인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서 생겨난 것이다. 문학교육의 위기에 대처하는 현실인식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전통적인 고전 교육을 강화하여 인문주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입장과 대중문화를 교육 내에 수용하여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현행 교육의 방향이 수용자 중심의 교육을 향한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문화 활동으로서의 문학에 관심을 두어, 문학교육은 수용자의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문학 체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보는 매체’ ‘보는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중매체 특히 영화를 교육의 보조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흥미를 키워 소설의 형식과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다른 매체로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활동이 문학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문학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소설과 ‘보는 매체’의 총아인 영화는 다른 장르임에 틀림없지만 서사구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영화는 그 탄생부터 지금까지도 소설에서 이야기를 빌려온⁶⁾ 공생공존의 관계를 지속해 왔다.

이에 본고는 소설 교육의 강화를 위해 국어 교육 과정에서 소설 교육에 대중매체 특히 영화를 활용한 수업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문학교육은 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를 돕고 삶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보는 문화’에만 몰입해서 자칫 문학을 즐기고 있다는 포만감을 느껴서는 문학교육의 본질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보는 문화’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때만 문학교육에 충실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친숙함과 익숙함을 줄 수 있는 영화를 교육현장에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영화 「삼포 가는 길」의 활용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소설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매체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인쇄매체인 소설을 읽음으로써 작품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졌다. 이들에게 생소한 시대·사회적인 배경 파악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작가의 묘사로 설명되는 인물들의 갈등이나 성격 그리고 사건을 따라가는 일도 쉽지 않다. 이런 청소년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영화를 활용해 작품이 이야기하려는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인물의 갈등과 성격, 사건의 필요와 전개 방향, 그리고 화면에 정확하게 구현되는 시대·사회적인 배경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또 영화와 소설에서의 차이점을 통해서 두 매체의 차이점을 이해시키려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본고의 목적은 소설 교육 현장에서 비슷한 서사구조를 가진 영화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학생들에게 소설 읽기를 유도하여 적극적인 수용과 생산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이에 영상매체 특히 영화와 소설의

6) L.자네트. 김진혜 역, 『영화의 이해』, 현암사, 1993, 303쪽

관계를 밝히고 교육적 활용방법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매체 교육에 대한 연구, 영화와 문학(소설)의 관련성 연구, 국어교육 특히 소설교육에서 매체 활용의 필요성 연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매체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모색 연구는 주로 매체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매체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 실시되어야 하는지를 다룬 연구들이다.

최장섭⁷⁾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디어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는 현대 사회의 매체 환경과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등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다. 또 계속된 연구를 통하여 미디어 교육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현황을 비교 제시하였다.

국어교육 영역에서 매체교육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 문학교육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문학교육 연구자들은 매체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적 대응에 관한 논의를 먼저 시작했다. 구인환 외⁸⁾는 ‘문학교육론’에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문학교육이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작품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위해 영상매체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현선⁹⁾은 다매체 시대 국어교육의 존재 조건과 의미에 대해 탐색하며 대중문화와 미디어 텍스트를 국어교육에 끌어들이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모색했다. 그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문화교육, 커뮤니케이션 교육, 능동적이고 성찰적인 독자로서의 의미생산자 양성, 미디어 텍스

7) 최장섭, 「초·중·고교생을 위한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 개발 연구」, 신문연구, 제31호, 1980

8)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88

9) 정현선,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역락, 2004

트 작가로서의 의미생산자 양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수용자, 독자의 능동성 문제가 문학수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영화와 문학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는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문학의 위기와 관련하여 상호관계를 조명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영화를 문학의 확장으로 보고 그 타당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김성곤¹⁰⁾이다. 그는 여러 가지 비평과 에세이를 통해 영상시대의 도래를 설명하고 ‘영상소설’을 예로 들면서 문학 텍스트의 확장으로서 영화를 규정하였다. 김성곤¹¹⁾은 또 영화를 문학 텍스트의 이동이자 확장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영상 책이 활자 책을 대신하고 있어 문학작품을 담는 책의 개념이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으며, 둘째, 장르의 급속한 해체와 확산, 고급문화 대중문화의 혼합으로 인해 예술과 문학예술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고, 셋째,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발견하는 문학과 예술성을 영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두 장르가 더욱 더 밀접한 연관을 갖고 서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시대이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활자문화 역시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설 교육에 영상매체라는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 민병기는 ‘영상문학’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영화를 문학 연구영역에서 하나의 텍스트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설연희¹²⁾ 소설 ‘서편제’와 영화 ‘서편제’를 인물 상징과 이미지 등을

10) 김성곤, 「영화- 텍스트의 이동인가 문학의 확장인가」, 『외국문학 불호』, 열음사, 1993

11) 김성곤, 『문학과 영화』, 민음사, 1997

12) 설연희, 『소설과 영화의 표현양식 비교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비교하여 소설 미학과 영상 미학의 차이점을 밝혔다.

문학텍스트의 영상화는 서구에서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한국 영화도 예외는 아니다. 남완석¹³⁾은 개념상의 불투명함과 애매함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자체가 바로 지난 100년 동안 맺어온 문학과 영화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대변하여 보여준다고 역설한다. 그는 또 러시아의 문예평론가 아이헨바움의 말을 빌려 ‘합법적이고 해후한 물론 부정이 없지 않았던 결혼’이라고 문학과 영화의 관계를 비유해 문학과 영화가 항상 상대를 견제하고 보이지 않게 부인해왔음을 은유하고 있다.

최근 영상 매체를 활용한 문학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활발하다.

박기범¹⁴⁾은 기존의 문학과 영화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여 문학교육에 영화를 수용해야하는 근거를 밝히고 그에 따라 영화를 수용한 문학교육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영상 매체를 활용한 소설 지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 효율성을 검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박경일¹⁵⁾은 영상매체의 대표적 매체인 TV, 영화 등의 매체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소설교육에 활용하는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수중¹⁶⁾은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설 읽기에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였는데 영화나 TV드라마에 친숙한 학습자에게 이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해석의 개방성을 높이며 매체 환경

13) 남완석, 「문학작품의 영화화-역사적, 이론적 고찰」, 뷔하너와 현대문학, 1999

14) 박기범, 『영화의 문화 교육적 수용 연구』, 한국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1

15) 박경일, 『영상매체 시대의 소설교육의 방향』,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6) 양수중, 『영상매체를 활용한 소설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한국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2

의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작품을 학습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어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유성부¹⁷⁾는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는 소설과 이를 각색한 영화를 비교하고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소설교육에서 영상매체 활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백형숙¹⁸⁾은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매체를 소설수업에 적용한 결과를 줄거리 요약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영상을 활용한 소설 수업이 원작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보다 소설내용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을 기억하는데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매체 활용의 정확한 효과의 증명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화에 따른 매체들의 발전과 사회·문화적인 영향력 확대에 발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매체 역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문학의 한 분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체를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매체를 교육 현장에 끌어들이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다. 매체를 교육 현장에 접목시키려는 노력과 매체 특히 영화와 문학과와의 관계 등을 살피는데서 그쳐 그 활용의 실제 모델을 만들어내는데까지는 그 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수용자 보다는 교수자 측면에서 연구했다고 평가되고

17) 유성부, 『영상매체를 통한 소설 감상 교육의 효과분석 연구』, 서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8) 백형숙, 『영상매체를 활용한 소설 지도』,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있다. 문제는 수용자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다. 수용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내는 데까지 그 논의를 확장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에 본고는 실제적으로 수용자를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화 작품을 통한 소설 교육의 실제’라는 틀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다.

3. 연구 필요성과 내용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아내가 결혼했다’, ‘오래된 정원’, ‘국화꽃 향기’, ‘결혼은 미친 짓이다’, ‘태백산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영원한 제국’, ‘경마장 가는 길’.

모두 한국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한국 장편상업영화들이다. 소설은 서사구조가 영화와 같다는 점에서 가장 많이 영화화되는 원전이다. 특히 1994년에는 ‘태백산맥’ 등 무려 8편이 장편상업영화로 제작되는 등 활발하게 영화화 되었다. 일본이나 미국 할리우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을 활발하게 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인당 1년에 약 12편 이상의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특히 15~19세의 청소년은 1년 14편 이상의 영화를 즐기고 있다. 이들 청소년은 중·고교 교육의 수용자들이다.

최근 몇 년 문학교육 과정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교수-학습의 연구가 이전의 교수 중심에서 학습 중심 즉 수용자 중심으로 옮겨갔고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

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학습 내용과 관련된 지식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숙지하여 다양한 실생활의 상황에 능숙하게 적용하는 능력 신장을 요구한다. 문학교육에서도 작품의 수용과 생산을 강조하면서 문학교육이 수용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 수용자인 학생들이 영상 매체에 익숙하고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교수자도 그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고의 주제인 영화를 활용한 소설 교육 방법 역시 이와 연관되어 있다. 현재의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적극 수용해서 교육의 현장에서 수용자가 흥미를 느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의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설 교육을 위해 수용자인 청소년들이 적극 체험하고 즐기는 영화라는 장르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소설은 작품의 체험을 통해 삶을 간접 경험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소설을 읽음으로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인간의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소설은 현실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른 문학 장르보다 교육적 효과가 높으며 소설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소설은 인간의 삶을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인물과 배경, 사건이 감상의 중요한 요소다.¹⁹⁾

영화는 소설에 나오는 배경이나 인물에 대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장면을 보여 주어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요소들에 대한 이미지와 형상화된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소설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또 영

19) 우한용 외, 『소설교육론』, 평민사, 1993

상화되면서 변화되는 사건이나 인물들의 갈등 등을 통해 소설과 영상 매체의 비교를 통해 소설에 대한 심화 읽기가 가능해진다.

소설교육의 목표를 단선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소설 텍스트와 학습자를 중심으로 인적 변인, 사회적 변인, 학습자의 문학 능력 변인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경전으로 삼아 주해 교육에 치중하는 문학교육을 뛰어넘어 일상생활에서 학습자들이 익숙히 접하고 있는 영화를 보조 교재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소설교육을 논의하고자 한다. 영상매체의 교육적 효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활용이 더해지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II장에서는 소설교육과 매체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문학교육 특히 소설교육과 매체교육의 관계를 살펴본다. 교육 현장에서 매체 활용이 적극 장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가장 필요한 일일 것이다. III장에서는 본고가 소설교육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매체인 영화가 소설교육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는 이유, 영화를 소설교육에 활용할 때 고려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볼 것이다. 이와 함께 영화를 활용한 소설 교육의 예로서 '삼포가는 길'의 소설 원작과 영화를 비교 분석한다. 소설과 원작을 각색한 영화의 주제의 변질 여부, 인물이나 배경의 변화 여부 그리고 사건의 진행과정의 변화 등을 살펴보며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 「삼포가는 길」을 소설교육에 활용하는 지도 방안을 제시해 본다.

IV장에서는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문학 교육의 긍정적인 수용 방안을 밝힌다.

Ⅱ. 소설 교육과 매체 교육

1. 소설 교육의 목표와 내용

1) 소설 교육의 목표

교육은 이념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내부에서 이념을 비판할 수 있는 자기 혁신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 가능성으로 부각된다.²⁰⁾ 문학 가운데 교육의 이러한 이념과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갈래가 소설이다. 소설은 비인간화로 치닫는 현대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성을 촉구하는 장르다.²¹⁾

소설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아 놓은 작품이다. 허구일지라도 현실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지속적인 유대감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어떤 문학 장르보다도 손쉽게 접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우리는 소설 속의 인물들에 나를 대입하기도 하고 소설 인물의 상황에 따라 희비를 느낀다. 이렇듯 소설은 독자로 하여금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작품 안에 깔려 있는 배경을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부수적인 교육의 효과를 나타낸다.

소설을 통한 교육적인 효과²²⁾는 첫째, 언어를 표현재료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언어 능력의 증진에 효과를 주고, 둘째, 인간의 삶을 다룸으로써 소설을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만남으로 개인의 정신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셋째, 개인적 주체성 확립에 도움이 된다. 넷

20) 문준호, 『소설교육 방법론 연구-텍스트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31쪽

21) 우한용 외, 「소설교육의 이념과 방법」, 『어문논총 15집』, 전남대 국어국문학회, 1994, 177쪽

22) 김대행,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38~56쪽

재, 문화 계승과 창조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소설교육은 소설의 이해와 감상 뿐 아니라 소설을 통한 올바른 가치와 정서의 함양까지를 포함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소설교육의 목표는 상상력의 세련, 삶의 총체적 체험, 문학적 문화의 고양이라는 문학교육의 일반 목표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²³⁾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에 대해서 작품과 작가중심의 접근을 지양하고 문학과 독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였으며, 교육에 관해서도 교사, 결과, 제재 중심의 접근 대신, 학생, 과정, 활동 중심의 접근을 하도록 하였다. 문학을 하나의 고립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매체 활동과 통합적 포괄적 문화 현상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²⁴⁾

문학의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며,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 가. 문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문학 활동을 한다.
- 나.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다.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하며,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3) 정진희, 『영상매체를 통한 소설교육방안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8쪽

24)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② 국어』, 교육과학기술부, 2008, 393쪽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작품 수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생산 활동을 하게 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인간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문학교육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의 이해,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의 배양, 삶의 총체적 이해,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학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소설교육의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⁵⁾

첫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 체험을 확대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창의적 감상능력을 신장한다.

셋째, 소설의 허구적 사회 현실을 통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운다.

소설교육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문학체험을 통해 능동적인 수용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소설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삶과 연관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도록 지도해야 한다.

2) 소설 교육의 내용

문학교육의 내용 체계는 세 범주로 나뉘어져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합하고 있다.

25) 허애리, 『영상매체를 활용한 소설교육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4쪽

|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 | |
|---|--|
| -시(시가) -소설(이야기) -극(연극, 영화, 드라마) -수필·비평 | |
| 지 식 ○ 문학의 본질과 속성 ○ 문학의 양식과 갈래 ○ 한국 문학의 역사 | 수용과 생산 ○ 내용 이해 ○ 감상과 비평 ○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 작품 창작 |
| 맥 락 ○ 수용·생산의 주체 ○ 사회·문화적 맥락 ○ 문학사적 맥락 | |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었던 문학교육은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서 끝난 데 비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창작 교육을 도입하여 수용 뿐 아니라 학습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창의성을 강조했다. 또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수용과 함께 ‘생산’을 강조해 수용자들이 적극적인 문학작품의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문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교육과정해설』, 교육과학기술부, 2008.

[7-문학-(1)] 문학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상태와 갈등의 해결 과정을 파악한다.

[7-문학-(2)] 문학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한다.

[7-문학-(3)] 역사적 상황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

[8-문학-(1)]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

[8-문학-(2)]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8-문학-(3)] 문학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를 파악한다.

[8-문학-(4)]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8-문학-(5)] 자신이 상상한 세계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다.

[9-문학-(1)]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고전 작품을 찾아 읽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9-문학-(2)] 문학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창작 동기와 의도를 파악한다.

[9-문학-(3)]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비교한다.

[9-문학-(4)] 문학 작품의 해석에 근거하여 유의하여 비평문을 읽는다.

[9-문학-(5)] 일상의 가치 있는 체험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0-문학-(1)]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한다.

[10-문학-(2)] 문학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한다.

[10-문학-(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10-문학-(4)]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갖춘다.

[10-문학-(5)]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에서는 문학을 통해서 주어진 정보를 습득하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수동적인 교육이 아닌 바람직한 문학 주체자로서 스스로 문학을 선택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야한다.

이미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교육의 기본 방향은 ‘열린 교육’과 ‘수용자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개인 능력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열린 교육’이고 가르치는 주체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배우는 주체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용자 중심’ 교육인 것이다. 또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수준별 교육내용을 국가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모든 학습자가 공통으로 학습해야할 공통 교육 내용만 제시하고 수준별 교육 내용의 선정,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을 학교 및 교사 수준으로 위임하고 있다.

결국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이에 도달하는 학습 방법을 현장과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차별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교과서만을 학습 재료로 하기 보다는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2. 매체 교육의 목표와 내용

1) 매체 교육의 목표

김대행²⁷⁾은 매체교육을 매체언어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기르고 매체를 조작하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바람직한 사용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우한용²⁸⁾은 매체교육을 매체를 통해 운용되는 언어 기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의 비중, 중요성,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매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생각과 느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책, 신문, 잡지, 라디오, 사진,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포괄한다. 매체는 사람들이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송수신자가 주고받는 의미가 운반되는 통로나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소통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²⁹⁾ 한편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등으로 대표되는 대중매체 또는 기계 전자 매체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매체는 인쇄매체와 영상매체, 인터넷매체로 나뉜다. 책, 신문 등이 인쇄매체이고 TV, 영화 등이 영상매체에 속한다. 신문과 같은 초기 인쇄매체는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문자 언어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그러나 사진술의 발달과 대량인쇄의 발달은 삽화소설, 사진집 등과 같은

27) 김대행, 「매체언어 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1998

28) 우한용, 「매체 언어의 회고와 전망」, 교과교육학연구, 1999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② 국어』, 교육과학기술부, 2008, 451쪽

이미지 중심 매체들의 보급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런 토대 위에서 영화라는 매체 기술이 발생하면서 영상매체의 영역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TV가 등장하면서 영상매체의 위력은 더욱 강력해졌다. 20세기 중반부터 TV와 영화 등의 득세로 인쇄매체의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이 줄었다.

인쇄매체의 등장이 과거에 대한 폭넓은 성찰을 불러 일으켜 이성의 지평을 열었다면 TV를 통한 영상화, 이미지화 현상은 근대적 이성의 자리를 없애고 그 자리에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TV는 이성보다는 감각의 우위성을 부여해 준 매체, 즉 형상과 이미지, 상업성과 상상력이 더욱 우선시되는 매체로 평가할 수 있다.³⁰⁾ 21세기 들어서는 인터넷의 창궐로 책과 신문 등의 인쇄매체가 더욱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20세기를 전후한 현대문명의 확실한 특징은 정보 매체의 혁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책으로 대표되던 인쇄매체를 TV, 인터넷 등과 같은 전자 매체가 대신해가고, 정보교환은 문자 기호의 개념적 의미 해석이 아니라 영상 이미지의 감각적 접촉이라는 양식을 띠어가고 있다. 또 이런 추세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³¹⁾

매체의 변화는 우리 언어 문화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어교육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언어의 의미가 확장되고 언어 환경이 변함에 따라 ‘보는 문학’을 간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³²⁾ 교육은 과거의 축적된 지식을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대

30) 이윤미, 『국어과 매체 교육의 개선 방안-영상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2쪽

31) 허애리, 『영상매체를 활용한 소설교육』,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2) 한진주, 『매체 활용을 통한 소설 교수 학습 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처할 수 있는 능력과 미래를 만들어 갈 창조적인 힘을 동시에 길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어교육에서 매체는 의미를 드러내고 전달하며 나아가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언어’의 이해와 표현 방식에 중점을 두어 접근하게 된다. ‘매체 언어’라는 용어는 매체의 언어적 특성과 소통 경로에서 발생하는 의미 작용을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다루기 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³³⁾

매체는 문학작품에서 요구되었던 다양한 상상력을 이미지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요 텍스트로 자리 잡았다. 문학은 초역사적으로 불변하는 초월적인 무엇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조건 속에서 역사적으로 규정되는 가변체이기 때문이다.³⁴⁾ 이제 매체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간섭하여 매체를 배제하고서는 어떤 교육적 기획도 문학적 소통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³⁵⁾

이와 같은 사실은 과거 문자매체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국어 교육 영역에 매체의 확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매체 사회 속에서 매체를 배제한 교육은 불가능해졌고 실제로 지금의 교육현장에서도 매체와 관련한 교육이 보편적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³⁶⁾

국어과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매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3)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② 국어』, 교육과학기술부, 2008, 452쪽

34) 김대행, 「문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문예중앙 94 가을, 308쪽

35) 박인기,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2004

36) 나경순, 「매체의 활용과 작문 교육」, 『국어교육연구 제8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1, 143쪽

김대행³⁷⁾은 인간 환경과 문화 인식의 변화에 따라 매체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종철³⁸⁾은 현대사회에서 언어 못지않게 영상 메시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양자가 어우러져 통일된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어교육에서 매체 언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화³⁹⁾도 시각언어로 의사소통을 통합하면 언어사용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 의사소통방법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 비판적 수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매체교육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결국 교수 학습 과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효과적인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각의 교수 매체에 대해 알고 그 속성에 따라 각 교수 학습 상황에 맞는 최적의 교수 매체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런 필요성의 제기에 따라 마침내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매체 언어'라는 선택 과목이 새롭게 설정된 것이다.

2) 매체 교육의 내용

매체교육과 국어교육의 공통점은 언어를 통한 읽기, 쓰기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을 기른다는 데 있다. 이러한 유사점이 매체교육을 국어교육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는 영상의 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지금 문학교육현장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과거의 교육이 교과서 중심의 닫힌 교재관이었다면 이제는 점차 열린 교재관으로 교재관이 변화해 가고 있다.⁴⁰⁾ 이는 단순히 교과서 활용의

37) 김대행, 「매체 언어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97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9~16쪽

38) 이종철, 「대중매체의 언어메시지 교육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제8집』, 1998, 106쪽

39) 이경화, 「학교교육으로 매체 교육을 실행하는 방안」, 『한국어문연구 제9집』, 2000.189쪽

40)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서울:삼지원, 1996, 103쪽

차원을 넘어서 교육에 다양한 방법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교사들이 열린 시각을 가지고 교수 학습 자료 제공에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각각의 교수매체에 대해 알고 속성에 따라 교수 학습 상황에 맞는 교수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7차 교육과정 국어과에는 매체 관련 교육 내용이 다수 제시되어 있다. 또한 문학 영역에서도 다음과 같이 매체 활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문학이 소동되는 다양한 매체 이해하기, 문학 작품을 다른 매체로 전환하기,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문학적 소통하기, 전자매체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문학 소통의 특성 이해하기, 매체를 활용한 문학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등으로 세부 내용을 구성한다. 이들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로 변환된 문학 작품들을 탐색하고, 문학작품을 다른 매체로 변환해 보며, 문학과 매체의 결합에 대해 토론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⁴¹⁾

2007 개정 국어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매체언어’ 과목에서는 매체 언어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⁴²⁾

매체 언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문화 향유 능력을 신장하고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적 태도를 기른다.

가. 매체 언어의 개념과 특성, 역할 그리고 매체 자료의 유형을 이해한다.

4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문학' 과목』, 1997, 316쪽

42)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2008, 454쪽

나. 매체 언어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매체 언어와 정보 사회, 대중문화, 인간관계를 파악한다.

다.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하며, 사회적 소통과 문화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와 함께 2007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의 여러 곳에서도 매체를 국어교육에 끌어들이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매체교육은 다음과 같다.

[7-읽-(5)]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에서는 매체 중 영화를 특징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8-읽-(5)] 다양한 풍자물의 매체 특성과 그 효과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다.’에서는 다양한 풍자물의 내용을 매체 특성과 표현 방식이 지닌 의미 효과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끌고 있다.

‘[9-읽-(5)] 만화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함축된 의미를 해석한다.’에서는 만화의 매체 특성과 표현 방식을 고려하여 만화의 함축된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매체부문에서는 ‘매체 언어’를 선택과목으로 신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화법’과목에서 ‘매체 활용’을 강조하며 화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법의 과정에 동원되는 비언어적 보조 자료들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각 자료를 활용하게 되며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고, 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청자의 기억을 도울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청중들이 시각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화자보다 시

각 자료를 활용한 화자가 준비성이 있고, 믿을 만하며, 전문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전달 내용에 대한 설득력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고 시각 보조 자료 활용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문학’과목에서도 ‘문학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참여한다.”고 강조하며 매체 활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 ‘문학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문학과 언어활동 및 매체의 관계를 이해한다.”고 목표를 제시하며 “문학이 사회적 소통의 한 방식으로 한편으로는 언어활동과 다른 한편으로는 매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언어, 매체, 문학은 각각 문화를 구성하는 부분이지만 문학은 특히 언어 및 매체와 밀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존립해온 문화의 한 부분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교수 학습 부문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자료를 개별화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국어과목 교육과정에 ‘매체언어’에 대한 과목 설정에 이르기까지 이미 많은 부문에서 매체 활용이 진행되었고 매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실행되어 왔다.

특히 매체가 특정한 관점과 가치를 지닌 개인과 집단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성되어 상업적 의도나 정치적 의도를 지닐 수 있고 이데올로기적 의미나 가치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체 자료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와 가치를 읽어낼 수 있는, 비판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 매체 언어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공유되어 대중에게 인기를 끄는 대중문화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언어라는 측면에서

- 매체 언어가 형성하는 대중문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 대중문화가 수용자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대중문화가 형성하는 세계와 현실을 주체적으로 이해한다.⁴³⁾를 세부 교육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중문화는 당대의 청소년 문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매체 언어가 청소년 문화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우리는 TV드라마, 영화, 뮤직 비디오 같은 영상매체가 폭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영상매체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영상언어를 즉각적이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인다. 영상매체는 그림, 문자, 동영상, 소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좀 더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단순히 문자만을 통해서 교육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보다 영상과 함께 전달해 주었을 때 활발한 능동적 수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영상 매체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교육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⁴⁾

- 영상매체는 구두 설명만으로 이해나 사실 파악이 곤란한 문제나 사물에 대한 개념을 묘사할 수 있다.
- 교과서나 개별 학습 자료의 시각적 보충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 수업중 주의 집중이 용이하다.

43)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② 국어』, 교육과학기술부, 2008, 465~467쪽

44) 사영미, 『읽기 학습의 영상매체 활용 교과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0쪽

-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 동기 유발에 관한 내용을 취급할 수 있다.
-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 오랫동안 학습한 것을 기억할 수 있다.

3. 매체를 활용한 소설 교육의 효과

1) 기대 측면

매체의 변화는 우리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어 교육에도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언어의 의미가 확장되고 언어 환경이 변함에 따라 ‘보는 문학’을 간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어과에서 매체교육을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영역 외에 ‘보기’의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⁴⁵⁾ 마침내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 과목이 신설된 것이다.

몇몇 연구자들도 매체를 국어교육에 접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박인기⁴⁶⁾는 국어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미디어 텍스트를 드라마, 광고, 만화, 뉴스, 다큐멘터리, 게임 텍스트로 구체화하여 학생들의 언어문화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는 교과서에만 국한되었던 획일화된 교재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이며 국어 교육에서 나아가 문화교육까지 교육의 장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45) 김동훈, 「영상매체를 활용한 국어과 수업」, 『연가내기의 영화교실』, 컬처라인, 2003

46) 박인기,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2004

최인자⁴⁷⁾는 매체를 국어교육에 접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문자소통체계가 청각, 시각, 촉각의 전감각적인 멀티미디어의 소통 체계로 대체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대중들의 문학적 체험 또한 TV드라마, 영화로 각색된 소설, 만화화된 소설, 낭송 테이프 등 다양한 매체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대중매체가 끼치는 영향은 제도교육이 따라가지 못할 추세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또 영상매체를 활용한 소설교육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⁸⁾

첫째,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여 주의를 집중시킨다.

둘째, 영상매체는 소설 작품 속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셋째, 시대에 걸맞게 쏟아지는 영상물들을 감상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소설과 영화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소설에 대한 이해를 높임은 물론 영화에 대한 이해까지도 할 수 있다.

2) 장·단점

(1) 장점

국어교육 중 문학교육의 목표는 “문학의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며,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이다. 소설교육은 소설의 이해와 감상 뿐 아니라 소설을 통한 올바른 가치와 정서의 함양까지를 포함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소설교육의 목표는 상상력의 세련, 삶의 총체적 체험, 문학적 문화의 고양이라는 문학교육의 일반

47) 최인자, 「영상 서사물의 해석 방법」, 『서사문화와 문학교육론』, 한국문화사, 2001

48) 호계숙 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학사, 1989, 83~89쪽.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소설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아 놓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대중매체의 총아라고 평가되는 TV드라마, 영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영화, TV드라마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소설은 이들 대중매체에 끊임없는 이야기를 제공해 왔다. 청소년들은 과거 소설을 통해서 하던 사회적인 이해와 타인의 삶에 대한 총체적 고찰을 최근에는 TV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하고 있다. 소설을 읽으며 치밀하고 밀도 있게 하던 이해와 고찰이 이제는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영상 매체를 통한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그 흐름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소설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소비가 중단된다면 영화와 TV드라마 역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공급이 단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는 문화’는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껴 집중할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는 문화’에 익숙해져있는 청소년들에게 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를 보여준다면 작품을 정독하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뚜렷하게 각인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영화를 보고 또래들과 직접 토론을 함으로써 자신이 이해한 부분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작품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또 소설 속에서 미처 잡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 이해하고 상상만으로는 공감하기 힘들었던 시대·사회적인 배경을 화면을 통해 접함으로써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원작을 바탕으로 하여 변용된 영화를 접하면서 수용과 창작과정을 거쳐 새로운 비판능력과 폭넓은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들은 청소년들이 쉽게 손이 가지 않는 비교적 무거운 내용들이 많지만 문학사적·사회적인 가치가 큰 작품들이다. 이런 작품들을 영상으로 청소년들

이 감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중매체의 총아인 TV드라마와 영화도 소설의 궁극적인 발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들 매체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소설은 이들 매체에 꾸준한 자양분의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소설과 영화, TV드라마는 가릴 수 없는 공존의 관계인 것이다.

(2) 단점

‘보는 문화’에 치중해서는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의 능력과 창조적인 사고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 영화는 자칫 이야기 체험이 피상화되고 학습자가 집단 유행성의 흐름 속에서 작품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조장될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수용의 수동성을 조장하기도 한다. 또 수용과정이 진실에 바탕을 둔 분석적 사고보다는 감각적 사고를 앞세우게 된다.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기고 있는 ‘보는 문화’ ‘보는 문학’을 활용해 본질적인 소설의 이해를 돕는 방법을 강구해야하는 이유다. 소설은 비인간화로 치닫는 현대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반성을 촉구하는 장르⁴⁹⁾인 까닭이다.

교수자는 수용자에게 영화의 매체적 특성을 이해시키고 영화 수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설이 영화화될 때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장르상의 차이로 인해 각색을 거쳐 사건의 축소, 변형, 삭제, 첨가 등의 내용과 길이의 변화를 겪게 된다. 둘째, 인물의 성격과 배경 등은 사건을 유발시키는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이야기의 개연성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소설을 영화화할 때 인물과 배경의 충실한 재현은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 재현의 정도를 고려해야한다. 셋째, 관점의 차이가 문제가 된다. 소설

49) 우한용 외, 「소설교육의 이념과 방법」, 『어문논총 15집』, 전남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4, 177쪽

에서는 자유로운 시점의 이동이 가능한데 비해 영화는 카메라의 시선이라는 객관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3인칭 서술자의 외부 시점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교수자는 이 점을 수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 이해시키고 영화를 소설교육의 현장으로 끌어들이어야 한다.

영화 감상이 문학 체험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 영화 감상으로 문화적 체험에 대한 포만감이 생기고 인간의 삶의 체험과 지적 내용이 담겨 있는 소설 읽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영화가 글로는 표현되지 않는 다양한 장면을 한순간에 담아 낼 수 있듯이 소설 또한 영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한 것들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소설이 미묘하고 섬세한 인물 심리 묘사까지를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풍부하게 재현 및 표현을 하는 것은 언어의 추상성과 관념성을 기반으로 한다. 학생들이 소설이 영상화된 영화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독서는 끊임없이 권장되어야 한다. 영화는 소설 교육에 활용될 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⁵⁰⁾ 즉 영화는 소설교육에서 작품 읽기의 흥미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영화를 활용한 교육을 할 때 교수자는 소설 작품을 읽지 않고 각색된 영화를 소설 작품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50) 구인환 외, 『문학교수·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8.

Ⅲ. 영화를 활용한 소설 교육

1. 소설 교육과 영화

현대 사회에서 영상매체의 영향력은 크다.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영상매체를 통해 얻고 있다. 학생들도 교실에서 지루한 교과서만으로 수업을 듣다가, 즐겨보는 영상 매체를, 그것도 교실 안에서 볼 수 있다면 매력적인 경험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점에서 오락과 교육이 결합된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적 의도는 살리되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형태로 접근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⁵¹⁾

소설교육에 영상매체를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유발하여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고 다른 장르의 감상을 통해 문학 해석의 다양성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소설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심화하는데 기여한다.

현대는 대중매체 시대이고 그 정점에 TV와 영화가 놓여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본고에서 소설교육의 보조수단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영화는 2009년 조사대상인 15~49세 인구에서 국민 1인당 1년에 12.2편의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밝혀졌다.(영화진흥위원회 2009도판 한국영화연감) 특히 15~18세의 청소년층은 연간 약 14편의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집계돼 청소년에게 영화가 각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09년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녀는 1년간 각각 8.2, 8.6권의 교양서적을 읽었다. 소설이 이 교양서적 분야에 포

51) 박인기 외 8, 『국어 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2000, 164~165쪽

함된 통계이니 한국의 남녀가 1년에 읽어내는 소설이 몇 편이나 될 지 안타깝기만 하다.

청소년들의 인쇄매체 특히 소설에 대한 외면과 영상매체 특히 영화에 대한 열광은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미 영화는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과정에서 끌어 들여졌다.⁵²⁾

[7-읽-(5)]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영화의 매체 특성 이해하기
- 영화의 서사 구조 파악하기
- 주요 인물의 성격 및 인물 형상화 방식 파악하기
- 영화에 나타난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토론하기

소설과 영화는 분명 다른 장르이지만 서사구조라는 큰 열개를 가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소설과 영화의 관계는 깊고도 오래다. 영화는 그 탄생 초기부터 소설에게서 이야기를 빌려왔다.⁵³⁾ 그만큼 소설은 영화에게 거대한 자료의 저수지로서 기여해 왔으며 영화가 성장하는 데 있어 더없이 소중한 자양분이 되어 왔다. 초창기 영화 대본의 상당수는 소설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그러한 관계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52)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해설 국어,도덕,사회』, 교육과학기술부, 36쪽

53) L.자네트. 김진해 역, 『영화의 이해』, 현암사, 1993, 303쪽

소설이 영상으로 각색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소설과 영화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이유는 두 양식이 모두 서사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소설과 영화는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⁵⁴⁾

김중철⁵⁵⁾에 따르면 서사물은 어떠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소설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될 수 있다. 매체적 차이가 있음에도 소설과 영화가 담고 있는 이야기의 전이가 가능한 것은 이처럼 매체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서사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서사 기술물인 소설은 사건을 시간의 흐름 혹은 공간의 이동 등을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적절한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위해 시간의 흐름을 정지시키거나 역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서사물의 전체성, 자기조정, 변형이란 속성은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⁵⁶⁾ 이런 점에서 두 장르의 서사 구조에서의 유사성은 영화가 소설을 분석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즉 소설 작품에 대한 꼼꼼한 읽기를 강조하여 텍스트 분석과 텍스트에 대한 문제제기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영화를 통해서도 이런 해석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영화나 소설 모두 의미를 발생하여 해독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고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⁵⁷⁾

소설과 영화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설교육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삶의 총체적 체험이라고 할 때, 영화는 소설과

54) 김중철, 『소설과 영화』, 푸른사상, 2000, 18~19쪽

55) 김중철, 『미디어 교육론』, 나남, 2000, 77쪽

56) 허애리, 『영상매체를 활용한 소설교육-서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43쪽

57) 문자텍스트가 생각을 통해 이미지를 얻어내는 반면 영화는 주로 이미지를 통해 사고를 창출하는 점에서 다르다고 본다. 영화가 이미지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악, 대사, 심지어는 문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문자 텍스트보다 오히려 그 의미가 풍요로울 수 있다.- 심경석, 「영화보기 읽기와 영문학 교육」, 『영미문학연구회 편-안과 밖 제 13호』, 창작과 비평사, 2002, 125~127쪽

함께 삶을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매체가 된다.⁵⁸⁾

영상매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영화는 다음과 같은 국어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⁵⁹⁾ 첫째,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유익한 대화를 할 수 있다. 대부분 여러 명이 함께 영화를 감상한 후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영화를 감상하면서 생략된 빈 자리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상상력을 세련시킬 수 있다. 셋째, 영화는 문학교육의 좋은 텍스트가 된다. 영화는 문자와 음성, 영상이 함께 어우러진 구조물로서 인간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담아낸다. 문학교육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삶의 총체적 체험이라고 할 때 영화는 좋은 텍스트가 된다. 넷째, 영화가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다. 다섯째, 원본 텍스트를 각색해 영화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작과 달라지는 변용의 원인과 실체를 찾아내게 하는 것도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작품을 두 장르를 통해 접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소설에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영화를 통해서 채울 수 있고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부분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기대하며 보는 것도 설레는 일일 것이다. 시대, 사회, 문화적인 배경 없이 소설을 접하면서 이해에 혼란이 생길 때 영화를 통해 서사적 즐거움을 이해하고 다시 소설을 읽는다면 처음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안목이 형성될 것이다.⁶⁰⁾

그러나 영화를 활용하여 소설을 교육적 성격에 맞게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작품의 수용에 있어 장르의 특성을 이해

58) 박기범, 『영화의 문학 교육적 수용 연구』, 한국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1

59) 김중철, 『미디어 교육론』, 나남, 2000, 100쪽

60) 장진희, 『영상매체를 통한 소설 교육 방안-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바탕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3쪽

하고 장르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작품 이해와 감상의 기본이다.⁶¹⁾ 영화를 활용한 소설 교육은 원작과 각색된 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소설과 영화의 공통점을 적극 이용하여 소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즉 소설의 구성이나 줄거리가 영화를 통해 독자에게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을 통해서 그 변형된 이유를 매체 특성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직접 탐구하게 함으로써 탐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영상을 통한 간접적인 문학체험의 기회는 인간 교육, 문화 교육차원에서 소설 교육으로써의 가치가 있다.

반면 소설이 영화화되는 과정에서의 서술방식의 차이로 변형이 발생한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술방식의 차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설에는 화자가 존재하지만 영화의 중재자는 카메라다. 카메라는 텍스트와 수용자인 관객 사이에 경계선으로 존재한다. 서술내용은 카메라를 통해 중개되며 관객은 카메라에 전적으로 의존해 카메라의 시선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 소설 화자의 시선은 텍스트 내부에서 비롯되지만 카메라의 시선은 관객의 존재영역인 텍스트 외부에서 비롯된다.

둘째, 인물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 양상이 각 장르에 따라 다르다. 소설에서 독자는 화자의 말과 그의 말이 담고 있는 해설과 주석을 통해 인물을 파악한다. 영화에서는 관객은 한 인물이 다른 인물들과 사건에 대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봄으로써만 그 인물을 알게 된다.

셋째, 소설에서의 화자의 발화 내용을 영화는 화면의 구성 자체로 대신할 수 있다. 소설은 화자와 그의 시점, 어조 등에 의거하는데 영화

61) 장진석, 『영상매체를 통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영화매체를 활용한 소설 교육의 방법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73쪽

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것은 카메라의 움직임, 각도, 위치, 거리 등 시각적 요소일 뿐이다.

소설이 미묘하고 섬세한 인물 심리 묘사까지를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풍부하게 재현 및 표현하는 것은 언어의 추상성과 관념성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영화의 카메라는 구체적이고 명료한 인물의 외양과 행위, 발화를 담아낸다. 모든 것을 직접적 감각성에 의존하는 영상과 음향, 음악으로 표현해야 하므로 재현이 어려운 심리적 갈등이나 내면묘사, 내적 고백, 풍자와 해학의 기법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다. 소설의 영상화 과정에서 인물 심리묘사가 영상으로 적절하게 옮겨지기 위해서 시점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시점 변화가 영화화 과정에서 이야기의 변형을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된다. 또 영상매체가 갖는 객관성은 소설의 영상화 과정에서 시점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사건의 첨가를 가능하게 하여 결국 이야기의 변형을 가져오는 근거가 된다.⁶²⁾

소설이 영화화될 때 원본 텍스트와 변용 텍스트 사이에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변화와 차이의 공통된 경향은 대중성의 강화라는 점이다.⁶³⁾ 소설의 영상화란 이야기를 대중적으로 소통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단순한 전달 수단의 전이가 아니라 전달 내용의 대중적 변이를 가리킨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소설의 영상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중적 변모는 소설의 대중적 확산과 소설의 소통 공간의 확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자칫 이야기 체험이 피상화되며, 학습자가 집단 유행성의 흐름 속에서 작품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조장될 수도 있다. 또 일

62) 허애리, 『영상매체를 활용한 소설 교육-서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48쪽

63) 김중철, 『미디어 교육론』, 나남, 2000, 100쪽

반적으로 영화는 수용의 수동성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야기의 템포를 빠르게 하거나 인물의 형상을 더욱 감각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이야기의 수용과정은 진실에 바탕을 둔 분석적 사고보다는 감각적 사고를 앞세우게 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⁶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의 감상이 소설교육의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수는 있지만 영화 등 영상매체의 감상이 문학 특히 소설 체험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 청소년들이 소설을 변용한 영화를 보고 포만감에 빠져 정작 원작 소설을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설은 영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한 것들을 표현하는, 그만의 독특한 표현능력과 깊이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독서는 끊임없이 권장되어야 하며 영화를 소설 교육에 활용할 때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보조 자료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영화 「삼포 가는 길」을 활용한 소설 교육의 실제

소설 「삼포 가는 길」은 당대의 민중작가라고 평가받는 황석영의 작품이다. 70년대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방황하는 주변인들의 모습을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영달, 정씨, 백화의 고향을 찾는 여정을 쫓는 여로형식의 단편소설이다,

이만희 감독의 영화 「삼포 가는 길」 역시 1970년대 대중성과 예술 영화의 미학을 동시에 구축했던 작품이다.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평단의 주목을 받은 빼어난 작품이다.

영화 「삼포 가는 길」은 소설의 주제와 인물 배경 사건 등의 재현

64) 강현주, 『영화를 활용한 소설교육 연구-오발탄을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48~49쪽

에 충실해 소설 원작과 가까운 영화로 평가받고 있다. 또 산업화에 따른 소외 계층의 문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고향’은 영원한 이야기 거리이다.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해 내용 전체가 영화 상영시간 100분여 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원작 소설도 짧은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다.

소설 「삼포 가는 길」은 7차 고등학교 18종 교과서중 지학사, 문원각, 민중서림,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등 10종에 수록될 만큼 교육과정에 폭넓게 소개되는 작품이다.

문제 작가의 소설, 작품성과 화제성을 겸비했던 영화, 원작을 충실히 재현해낸 영화 그리고 현행 문학 교육과정에서 폭넓게 소개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삼포 가는 길」을 소설 교육의 실제 모델로 삼았다.

1) 소설 「삼포 가는 길」 과 영화 「삼포 가는 길」 의 비교

(1) 「삼포 가는 길」 개관

① 소설 「삼포 가는 길」

1973년에 발표된 황석영의 단편소설이다. 황석영은 1970, 1980년대의 대표적인 리얼리즘 문학으로 평가받는 ‘객지’, ‘무기의 그늘’, ‘한씨 연대기’ 등을 창작하고 ‘장길산’과 같은 역사 소설을 쓰기도 하였다. 이 소설도 그의 이러한 문학적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다. 소설은 공사판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두 노동자와 술집 작부의 짧은 동행을 그리고 있다. 1970년대 산업화의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된 고향과 고향을 떠나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고달픈 삶 속에서도 서로의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인물들의 모습과 서정적인 작품의 배경이 조화를 이루어 수준 높은 문학성을 획득

득하고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도 절제된 묘사, 적절한 인물 설정과 대화 등이 잘 융합되어 있는 1970년대 단편 소설의 모범이 되는 작품이다. 1970년대의 문학에는 ‘소외의 미학’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소외 계층에 대한 문학적 접근이 풍부하게 나타났다. 이 소설은 이러한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노동자의 현실을 다루면서도 당시의 ‘노동 문학’이나 ‘민중 문학’이라 불리었던 작품들이 문학적 형상화의 측면에서는 미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문체와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난 문학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문학과 사회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문학은 한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② 영화 「삼포 가는 길」

황석영의 동명 원작 소설을 영화화하여 격찬과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가상의 공간인 삼포라는 고향을 찾아가는 정가를 중심으로 떠돌이 일꾼인 노영달과 시골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라는 작부의 여정을 담담하게 따라가면서 1970년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고도성장의 이면에서 뿌리를 잃고 헤매는 군상들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묘사한다. 제14회 대중상 영화제에서 우수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음악상, 편집상, 신인상, 남우조연상 등을 수상하였고 제25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 초청받았다. 당시 최고의 감독으로 꼽히던 이만희 감독의 유작이다. 이만희 감독은 이 영화의 편집 작업 도중 급환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이만희 감독은 이 영화를 보지 못하고 말았다. 각색을 맡은 유동훈 작가는 당시 이만희 감독이 여주인공에 초점을 맞추었고 유동훈 작가는 남자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해서 갈등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실제로 영화

를 보면 감독의 의도대로 백화의 비중이 소설에 비해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플롯

① 소설

1. 막노동판을 떠돌아다니는 영달은 너 달 동안 머물러 있던 공사판의 공사가 중단될 것을 예측하고 식당에서 밥값을 떼어먹고 도망친다.
2. 그는 어디로 갈까 망설이던 중 정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3. 정씨는 자신의 고향 삼포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마땅히 거처가 없는 영달은 정씨와 동행한다.
4. 둘은 찬샘이라는 마을의 한 식당에 들러 국밥 두 그릇을 시킨다. 이들은 식당에서 일하던 백화라는 젊은 접대부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된다.
5. 영달은 식당 주인이 백화를 잡아오면 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정씨와 함께 급히 길을 나선다.
6. 정씨와 영달은 갈림길에서 한 노인을 만나 월출 가는 길을 묻는다. 월출은 뒷길이었으나 눈이 많이 오고 재가 있어서 이들은 감천이 있는 아랫길을 택한다.
7. 영달과 정씨는 노변의 구멍가게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다. 그때 정씨보다 약간 처져있던 영달이 소나무 아래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여자를 발견한다.
8. 영달은 그 여자가 백화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잡아채려 한다. 백화는 오히려 영달을 밀어 버리고 거세게 쏘아붙인다. 그러자 영달은 자신은 의리 있는 사람이니 잡아서 식당에 팔지 않겠다고 이

야기한다.

9. 셋은 동행한다. 눈길을 동행하다 지쳐 영달과 백화는 정씨에게 아무 집이나 들러 쉬어가자고 얘기하지만 정씨는 무시하고 강행군을 한다.
10. 한참 길을 걷다 폐가를 발견한다. 영달은 폐가에서 쉬어가자고 제의하고 셋은 모두 불을 지피 휴식을 취한다.
11. 갑자기 백화가 영달을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며 자신의 감정을 얘기한다. 그러나 영달은 자신의 연애 경험을 이야기하며 백화의 감정을 뿌리친다.
12. 정씨가 백화에게 어디로 갈 거냐고 묻는다. 그저 웃기만 하고 대답이 없는 백화에게 시집이나 가라고 이야기한다. 백화는 농사나 지으며 살 거라고 한다.
13. 눈길을 걷던 백화가 갑자기 넘어져 신음한다. 영달은 백화를 업고 이상한 감정에 빠진다. 영달은 자신의 옛 연인 옥자(영달이 대전에서 만난 연인사이로 언약을 한 인물. 영달이 실직하자 식모살이를 위해 서울로 떠남)를 떠올린다.
14. 역에 도착한 정씨는 백화에게 어느 방향이냐고 묻는다. 백화는 전라선을 탈 거라고 얘기한다.
15. 셋은 팔시루 떡을 사서 나누어 먹는다. 백화는 영달에게 자신을 업고 오느라 수고했다면서 자신의 뒤통을 떼어 영달에게 준다. 백화는 영달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같이 가면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한다. 옆에 있던 정씨는 같이 가라고 얘기한다.
16. 영달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백화에게 포 한 장과 먹을거리를 조금 사서 주고 백화를 혼자 보낸다.
17. 백화는 충혈된 눈으로 개찰구를 빠져나간다. 그리고 영달에게 자

신의 본명은 백화가 아니라 이점례라고 소리친다.

18. 백화가 떠나가고 영달과 정씨는 삼포로 가기 위해 기다리던 중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노인은 삼포가 공사판이 되어 과거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19. 고향의 그리움에 젖어 있던 정씨는 크게 실망했고,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영달은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좋아한다.

②영화

1. 때는 한 겨울. 하얗게 눈이 쌓인 어느 곳에서 한 젊은 남자(영달)가 담배를 피우다가 누군가(정씨)를 만난다.

2. 영달은 정씨와 몇 마디 나누다가 정씨를 따라 간다. 한참 걸다가 들은 한 식당에 들러 해장국을 먹는다.

3. 식당주인 아주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백화라는 여인이 5만원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소리치면서 남편보고 월출(기차역)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오라고 한다. 그리고 영달과 정씨에게도 인상착의를 말하고 난 뒤, 잡아오면 돈 만원을 포상금으로 주겠다고 말한다.

4. 영달은 식당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 백화를 잡을 작정을 한다. 밥값계산을 정씨에게 맡기고 들은 다시 길을 나선다.

5. 정씨와 영달은 길을 가다 가게에 들러 술과 담배를 산다. 다시 길을 걸으며 노영달은 정씨에게 어디로 갈 거냐고 묻는다. 정씨는 삼포로 간다고 말한다. 그곳을 가본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비옥한 토양이 있어 살기 좋은 곳이라 말한다.

6. 길을 걷다 어떤 다리 밑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여인을 만난다. 영달은 백화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는 식당주인에게 팔겠노라며

백화를 잡아챈다. 이에 백화는 자신의 과거(자신을 거쳐 간 남자가 많다 등)를 이야기하며 드센 모습을 보여준다.

7. 영달은 백화를 그냥 내버려두고, 정씨와 함께 다시 길을 걷다가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몰래 뒤를 따르던 백화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리고는 어떤 트럭을 잡아타고 혼자 가 버린다. 그러나 트럭 기사와 가는 길이 다름을 알고 욕을 하며 다시 내린다.(수정 및 추가)
8. 백화는 영달과 정씨를 기다린다. 백화는 영달과 정씨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은 원래 착한 사람이며 식당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 영달과 백화는 서로 티격태격하다 말고 셋은 동행을 하게 된다.
9. 셋은 감천을 향하여 열심히 걷는다. 갑자기 백화가 엎어져 다리를 다친 척 한다.(백화가 서서히 영달에게 호감을 느낌) 영달은 백화를 업고 걷기 시작한다.
10. 밤이 되자 셋은 폐가에 들어가 불을 피우고 얘기를 나눈다. 정씨가 영달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자 영달은 일터가 고향이라며 눈물을 보인다.
11. 백화가 영달을 달래며 불쌍한 사람 취급을 하자 영달은 화를 내며 백화에게 '화냥년'이라고 욕을 한다. 백화와 영달은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백화가 사라진다.(추가)
12. 백화는 읍내로 내려가 어떤 식당에서 접대를 약속하고 하루 묵기로 한다.(추가)
13. 정씨와 영달은 술을 마시기 위해 읍내로 내려갔다가 백화와 식당 손님이 싸우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다. 정씨는 백화의 아버지라고 거짓을 꾸며대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백화를 데리고 나온다.(추

가)

14. 셋은 다시 폐가로 돌아와 불을 켜다. 셋은 서로의 정처를 묻는다. 정씨는 삼포가 그리워서 간다고 했다. 백화는 가족도 친지도 없고 갈 곳도 없지만 목포로 간다고 한다. 이야기가 끝나고 백화와 영달은 뜨거운 하룻밤을 같이 한다.(추가)
15. 다음날 셋은 동네잔치에 동참하여 춤을 춘다. 그리고 어떤 초상집에 들어가 마치 조문객처럼 행세하며 허기진 배를 채운다.(추가)
16. 초상집에서 백화는 술집에서나 있을 법한 노래와 춤으로 흥을 내다가 셋은 모두 물매를 맞고 쫓겨난다.(추가)
17. 백화가 영달에게 목포로 같이 가자고 한다. 영달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 백화가 옷을 보고 있는 사이 정씨와 함께 몰래 도망쳐 버린다.(추가)
18. 영달은 정씨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추가)
19. 기차역에서 셋은 다시 만난다. 영달은 목포행 기차표를 한 장 끊고 삶은 계란과 과자 몇 가지를 산 후 가진 것 모두를 백화에게 준다. 영달은 많은 눈물을 흘린다. 백화도 많은 눈물을 흘린다.
20. 백화는 울면서 자신은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자신을 거쳐 간 남자도 사실은 많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영달이 같이 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영달은 울기만 한다.
21. 개찰구가 열리고 백화는 목포행 기차를 타러 간다. 백화는 영달에게 자신의 본명은 이점순이라고 말하고 사라진다.
22. 영달은 울면서 정씨와 함께 떠난다.
23. 백화는 기차를 타지 않고 다시 역에 나와 영달이 사준 과자를 먹으며 쓴 미소를 보인다.(변형)
24. 삼포로 가는 버스에서 영달은 공사장 일꾼들과 합류해 정씨와 헤

어지게 된다.(변형)

25. 부푼 마음에 삼포 어귀에 들어선 정씨는 그동안 마음의 안식처로 삼아온 삼포의 부둣가와 나룻배, 모든 것이 신작로로 덮여 버린 것을 집적 보게 된다.(변형)

2) 소설과 영화의 공통점

① 길은 삶의 여정이다

삶을 이야기할 때 흔히 길은 삶을 상징하는 모티브가 되곤 한다. 「삼포 가는 길」은 이른바 ‘여로 소설’ (로드 무비)이다, 공사판에서 삼포라고 하는 정착지로 향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일과 인물들의 과거사가 펼쳐진다. 영화도 원작의 구성에 충실하다. 이러한 여로형 구성에서는 동반자와의 만남이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그들은 제각각 다른 삶을 살아온 자들이지만 동행하는 동안에는 공통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이 작품들에서도 영달, 정씨, 백화가 도중에 만나고 또 헤어진다. 삶의 본질은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다.

② 함께 걷기는 하나 되기다

「삼포 가는 길」의 인물들은 지식인과는 정반대의 계층이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 중심부에서 동떨어져 척박한 삶을 사는 이른바 주변인들이다. 영달, 정씨, 백화는 농담과 음담으로 일관하며 그저 적적해서 동행관계를 유지할 뿐이다. 그러나 여로가 이어지면서 이 심정적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진다. 이들은 모두 산업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며, 고향을 상실한 떠돌이라는 점에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안고 있

다. 먼 거리에 있던 이들은 동행의 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츰 하나로 합일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제를 심화해 나간다.

③ 고향 상실은 산업화 시대의 상실의 의미다.

고향 상실은 그들의 정체성을 앗아가고 거대한 산업사회의 생리에서 이탈된 자로서의 소외감과 고통을 그대로 안겨준 것이다. 그들은 모두 고향을 향해간다. 떠나온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의지로 표상되는 현실이 진정한 삶의 터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한다. 산업사회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고향으로 회귀하는 이유는 고향이야말로 그들의 순정한 삶을 보장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삼포 가는 길」의 마지막 대목은 이런 비극성을 극화한다. 삼포는 그 때의 삼포가 아닌 것이다. 영달이 정처 없이 발길을 옮길 때 정씨가 비교적 안정된 정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겐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이 대목에서 영달과 정씨의 위상은 역전된다. 이런 면에서 백화도 고향에서 이전의 삶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제 모두에게 고향은 사라진 것이다. 도시화, 산업화는 고향을 상실케 했고 정신적 공허를 불러 온 것이다. 문명의 발달은 이런 부정적 요소를 안고 우리의 삶을 제약한다.

3)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

본고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바로 원작 소설과 영화의 차이다. 영화를 활용하여 소설 교육을 이행할 때 가장 주의해 수용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사항이다. 이를 통해 두 장르의 차이점을 이해시키고 소설 원작이 영화화될 때 변형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소설은 1인칭, 1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등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작가가 자유롭게 써나가게 된다. 영화는 글이 아닌 영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묘사할 필요가 적다. 또 카메라라는 중개자가 객관적 시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화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만들어진다. 「삼포 가는 길」 역시 그러하다. 또 영화는 일단 제한된 시간(100~120분) 안에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관람자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심하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 내용을 수정해 원작의 재미를 떨어뜨리거나 내용의 깊이가 적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설의 영화화는 종종 원작의 의미를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장편소설을 영화화할 경우 긴 내용을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담을 수 없어 함축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단편소설인 「삼포 가는 길」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영화화에 성공한 사례다.

① 인물 묘사

소설은 묘사에 치중하고 있지만 영화는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묘사를 하지 않는다.

소설은 영달과 정씨의 첫 만남에서 상황이나 대사보다 그들의 옷차림과 말투를 전달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달이 쪽을 보면서 왔다.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달이는 작달막했다. 그는 팽팽하게 불러 오른 멧꿩이 배낭을 한쪽어깨에 느슨히 걸쳐 메고 머리에는 개털 모자를 귀까지 가려 쓰고 있었다. 검게 물들인 야전잠바의 깃 속에 턱이 반 남아 과문혀서 누군지 쌍통을 알아볼 도리가 없었다.”

“가다가 스물 두엇쯤 되고 머리는 긴데다 외눈 쌍꺼풀인 계집년을 만나면 캐와 봐서 좀 잡아오수.”

영화에서는 영달과 정씨가 등장함으로써 그들의 모습이 이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색이나 만남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백화를 찾아달라는 식당주인 여자가 백화의 인상착의를 얘기하는데 백화는 긴 머리에 외쌍꺼풀을 지녔다고 한다. 백화의 외쌍꺼풀은 이 영화가 주로 ‘롱 샷’⁶⁵⁾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묘사하지 않고 직접 보여주고



흰 눈 속에 백화의 모습이 부각되도록 백화가 등장하기 전 주점에서 백화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붉은 털외투를 강조하였다.



65) 영화촬영기법. 주로 전경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원거리에서 찍는 방법.

② 배경묘사

소설에서 길게 설명된 인물의 모습과 성격, 배경에 대한 묘사는 영화의 ‘보여주기’로 인해 스크린에 배경이 보이고 배우가 등장함으로써 축약된다. 소설 첫 부분에 나타난 배경묘사는 황석영 특유의 간결함과 서정적인 문체로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을 묘사하여 보여 지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진다.

“밝아 오는 아침 햇볕 아래 햇빛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 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 소리가 먼데서 부터 몰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을 배면서 지나갔다.”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언 흙이 부서지는 버석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리쬐인 곳은 녹기 시작하여 붉은 흙이 질척해 보였다. 다가오는 사람이 숲 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벌겍게 붙어 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

영화에서는



눈 쌓인 들판의 풍경을 그대로 관객들에게 보여주며 원작처럼 묘사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소설 속에서 상상으로만 그쳤던 배경이 영화에서는 스크린 전면에 드러남으로써 관객의 눈을 즐겁게 하고 소설 작가의 묘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배경은 주제를 부각시키고 등장인물의 슬픔을 관객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푹푹 빠지는 눈길만으로도 등장인물들의 험난한 여정을 예상할 수도 있다.

③ 배경음악과 색깔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배경음악과 배경에 주로 나타나는 색으로 작품의 분위기와 감정을 보다 극화시키는 데에 있다. 영화에서 처연하고 쓸쓸한 음악이 애수를 불러일으키며 때로는 현장감을 아예 사용하지 않아 화면 자체의 쓸쓸함과 등장인물의 기분을 보다 절절히 느끼게 한다. 또한 이 영화의 주색조라고 할 수 있는 백색은, 탐미적인 동시에 너무 힘겨웠던 나머지 아예 그 고통의 기억마저도 하얗게 지우고 싶은 세 사람의 심정을 표현했다. 또한 세상 풍파에 치여 닳아가 되어버린 세 사람과 대조적으로 하얀 겨울의 설원 풍경은 그들의 품 속 깊숙이 숨어 있는 티끌 하나조차도 쉽게 찾아내는 탐지기가 되어 버린다.

④ 결말

소설에서는 영달과 정씨가 함께 삼포로 가기 위해 백화를 보내고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있던 노인에게서 지금은 삼포가 많이 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유일한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정씨의 아연실색이 느껴지며 끝난다.

영화에서는 영달이 삼포로 가는 버스에서 공사장 일꾼들과 합류해

정씨와 헤어지게 된다. 부푼 마음에 삼포 어귀에 들어선 정씨는 그동안 마음의 안식처로 삼아온 삼포의 부둣가와 나룻배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신작로로 덮여버린 것을 직접 본다. 소설보다 허탈함이 강조된다. 고향을 잃은 노동자의 비애가 원작보다 절실하게 느껴지는 결말이었다.

⑤ 인물 설정의 변화

영달 백화 정씨는 소설과 영화에서 달리 설정되어 있다.

㉠ 정씨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된 인물은 정씨다. 소설에서는 영달보다 서너살 위의 삼십 대 짝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영화에서는 분명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짝으로 만들어졌다. 정씨는 자신의 입으로 딸이 있으며 올해로 18살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정씨의 나이의 변화는 백화와의 관계 설정에 의도를 둔 듯하다. 정씨가 술집에서 싸움에 휘말린 백화를 잃어버린 딸이라고 설명하며 백화를 구하고 백화가 ‘아저씨’라는 말을 하며 푸근함을 느끼는 장면 등에서 정씨와 백화가 마치 부녀 지간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 영달

소설에서는 느끼지 못하던 코믹함과 해학적인 모습이 덧붙여졌다. 정씨와의 동행에서 보이는 코믹한 모습과 함께 초상집에서 과장된 모습으로 문상을 하는 모습 등은 해학적인 캐릭터의 보강이라고 보여진다.

㉢ 백화

소설보다 영화에서 좀 더 순수하고 처연해 보이며 소설과는 달리 영

화에서는 고향도 없고 부모도 모르며 가족도 없는 인물이다. 백화는 정씨에게 “아저씨 고향에 나도 좀 붙여줘요. 내 고향도 삼포로 해줘요.”라며 고향도 가지지 못한 인물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에서 영달에게 애정을 보이며 “나도 애 낳을 수 있어요. 만난 남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하는 부분에서는 소설에서와는 달리 백화의 순수성이 드러난다.

영화에 나타나는 소설과 다른 인물들의 변화는 세 사람의 동행이 일종의 유사가족 혹은 공동체로 변모하게 만든다. 아버지격인 연장자 정씨, 딸 격인 백화 그리고 사위 같은 젊은 노영달은 미묘한 애정관계를 형성하며 가족의 형태를 이룬다. 또 눈보라 속에 노영달과 백화가 쓰러지고 정씨가 이 둘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는 것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가장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특히 정씨가 술집에서 곤경에 처한 백화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이들의 유사가족 관계는 정점에 달한다.



⑥ 변형, 추가, 삭제된 부분

㉠ 변형

소설에서는 영달과 정씨의 동행이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영달이 정씨를 따라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영달은 정씨를 보며 “썩폰 꽤나 꼬불쳐 가졌겠는데. 저 꼰대한테 꼽사리나 끼어볼까.”하고 지껄인다. 영달의 동행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소설과는 달리 정씨는 아직 ‘삼포 행’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소설에서는 노인의 설명을 듣고 두 사람이 감천을 택한다. 영화에서는 두 사람 앞에 감천과 월출 두 갈림길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나온다. 정씨는 월출을 택하려 하나 영달이 함께 백화를 잡자며 굳이 감천으로 갈 것을 권유하고 두 사람은 동행한다. 그리고 영달은 백화를 잡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이는 듯 뽕뽕 숨긴 쌈짓돈을 꺼내 소주와 담배 건빵 등 비교적 풍부한 먹을거리를 마련한다. 그제야 정씨가 ‘고향 삼포로 간다’고 밝히고 영달은 ‘고향’이라는 말에 씩씩한 비애를 드러낸다.

영화의 영달은 백화의 기체에 밀려 잡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백화에게 대신 3000원을 현금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지만 백화는 자신의

손가방을 땅바닥에 쏟아 부으며 가진 것 없는 신세임을 과장해 설명한다.

소설에서는 백화가 다리를 다치는 것이 뒷부분에 나타나지만 영화에서는 일찍 백화가 다리를 다쳐 영달의 등에 업히며 감정을 쌓아가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마저 백화의 속임수로 설정한다.

폐가는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등장인물들의 숨겨진 사연과 감정 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들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서로의 사연을 소개하고 단순히 백화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할애된 부분이라면 영화에서는 사연 소개와 함께 고향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드러내고 인물들 간, 특히 영달과 백화간의 갈등을 최대로 보여준다. 흥가에서 영달과 백화가 자신의 과거를 과장되게 밝히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다. 특히 백화는 영달에게 호감을 급속도로 표현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백화가 기차를 타고 자신의 고향으로 향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영화에서 백화는 기차를 타지 않았다. 정씨와 영달은 기차를 탔다. 기차를 타지 않은 백화는 다시 기차역에 나타나 영달이 사준 빵을 먹으며 아련한 표정으로 역 밖의 술집을 바라본다.



소설에서는 기차역에서 노인의 이야기로 정씨의 고향을 알아간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됐던 ‘삼포’라는 고향이 사라지며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다. 영화에서의 정씨는 부푼 마음에 삼포 어귀에 들어서지만 그동안 마음의 안식처로 삼아온 삼포의 부둣가와 나룻배, 모든 것이 신작로로 덮여 버린 것을 직접 보게 된다.



소설과 달리 영화는 보여주기와 부연 설명에 집중한다. 소설에서 단순히 영달의 입을 빌어 상상하던 일이 영화에서는 삼포로 가는 버스 안에서의 영달의 해프닝, 버스 안에서 등장한 노인을 통한 삼포의 현실을 상기시키면서 정씨의 고향 상실을 강조한다. 직접 삼포의 현실을 본 정씨를 통해서 더 큰 고향 상실의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소설에서는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정씨의 고향, 삼포의 모습을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영화의 통과는 다른 현대적인 다리를 원거리로 잡아내며 고향상실의 허탈감과 함께 아련함으로 보여주었을 지도 모른다.

㉠ 추가

영달 정씨 그리고 백화 세 사람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많은 부분이 추가됐다.

소설에서는 세 사람이 만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바로 동행에 나서지만 영화는 간격을 둔다. 영달과 정씨는 백화를 버려두고 두 사람만이 길을 간다. 뒤따라오던 백화가 나타나지만 백화는 곧바로 트럭을 타고 사라진다. 그러나 방향이 맞지 않자 다시 두 사람을 기다렸다가 동행을 결정한다.



백화는 동행 중 영달과 다투고 읍내로 내려가 어떤 식당에서 접대를 약속하고 하루 묵기로 한다.



백화를 떠나보낸 정씨와 영달은 술을 마시기 위해 읍내로 내려갔다가 백화와 식당 손님이 싸우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다. 정씨는 백화의 아버지라고 거짓을 꾸며대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백화를 데리고 나온다.



영달 정씨 백화는 폐가로 돌아오고 백화와 영달은 흥가에서 뜨거운 하룻밤을 같이 한다.

또 다음날 셋은 동네잔치에 동참하여 춤을 춘다. 그리고 한 초상집에 들어가 마치 조문객처럼 행세하며 셋은 허기진 배를 채운다.



초상집에서 술집에서나 있을 법한 노래와 춤으로 흥을 내던 이들은

물매를 맞고 쫓겨난다.



가까워진 영달과 백화는 함께 장터를 구경하지만 영달은 백화가 옷을 보고 있는 사이 정씨와 함께 몰래 도망쳐 버린다.



이만희 감독에 의해 창조된 부분이다. 원작의 주제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는 이야기들이지만 감독은 결말로 치달으면서 나름대로 가진 것

없는 자들의 동화와 누가 누구를 챙겨줄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술집에서 싸우고 있는 백화를 구해내는 정씨를 통해 가족애를 드러낸다. 정씨는 백화를 구해내기 위해 잃어버렸던 딸이라는 피를 내지만 이는 정씨의 가슴 속에 있는 어쩔 수 없이 버렸던 가족, 특히 딸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소설과 달리 백화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족도 없는 처지임을 설명한다. 여기서 이만희 감독은 황석영 작가의 ‘고향’에 대한 아련한 감정과 함께 가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 소설과 달리 영달과 백화는 마침내 사랑을 이룬다. 결국은 영달의 현실 인식으로 백화에 대한 포기로 끝나지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준다. 영달의 과장된 연기가 돋보이는 초상집 장면 역시 뒷날 이청준의 소설 ‘축제’를 임권택 감독이 영화화한 ‘축제’에서 드러나듯이, 죽음 역시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임을 표현하고 있다. 술집에서 백화를 구해내는 정씨와 영달의 행동과 싸움, 영달과 정씨의 사랑 장면, 초상집에서 영달의 과장된 조문 연기와 술판을 벌이다 물매를 맞으며 도망가는 정씨, 영달, 백화 일행의 모습은 영화가 움직임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움직임이 많은 장면들의 추가로 이해된다.

㉔ 삭제

소설에서는 영달과 정씨가 백화의 도망 소식을 듣는 서울식당이 있는 찬샘을 설명하면서 “기다란 철책과 철조망이 연이어져 마을 뒤의 온 들판을 둘러싸고 있는 것도 보였다. 군대의 주둔지인 듯했는데, 마을은 마치 그 철책의 끝에 간신히 매어달려 있는 것 같았다.”고 마을을 설명한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는 이런 장면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또 소설에서

“어젯밤에 윤 하사하고 긴 밤을 잔다구 그래서,”

“새벽에 윤 하사가 부대루 들어가자마자 튼 겁니다.”

하던 인물들의 대화가 영화에서는 ‘윤 하사’가 ‘윤 기사’로 대체된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한 쪽 이상을 할애했던 백화의 ‘화류계 연애’를 설명하는 부분 전체가 삭제된다.

“백화는 주점 ‘갈매기 집’에서의 나날을 생각했다. 그 여자는 날마다 뒷마루에 걸터앉아서 철조망의 네 귀퉁이에 높다란 망루가 서 있는 군대 감옥을 올려다보았던 것이다.옥바라지 두 달 만에 그는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백화를 만나러 왔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병사는 전속지로 떠나갔다.”

삭제된 부분은 모두 군과 관련되어 있다. 주제를 드러내는 데서 특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황석영 작가나 이만희 감독이 다룬 이 작품이 당시 정권에서 환영할만한 작품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의 협조를 받기도 힘들었을 테고 큰 중요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많은 부분이 영화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측된다.

소설이 영상물로 각색되는 과정에서는 인물의 동적 움직임이 부각된다. 이 작품을 통해서도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장면들, 예컨대 춤을 추거나 달려가거나 넘어지거나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거나 하는 등의 동적 변화가 크고 외적 물리적 운동성이 큰 장면들이 영상화 과

정에서 추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이 동적 움직임은 강조하는 것은 그 움직임이야말로 영상 매체 특유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영상의 ‘움직이는 그림’ 효과를 발휘하는 장면들 대개가 이야기 전개상 긴밀한 내적 필연성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새롭게 설정, 삽입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상의 역동성이나 사실적인 생동감 그리고 영상적 리듬이 영상물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설은 인물의 내적 의식을 쫓는다고 한다면 영상물은 인물의 외적 행위를 쫓게 마련인 것이다.

이런 움직임과 선정성의 강화는 대체적으로 대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대중의 흥미를 끌거나 호기심을 돋울만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원작 소설에 비해 각색된 영상물에서 대중적 요소들이 어떻게 첨가, 강화되고 있는 지 그 양상들을 살펴본다.⁶⁶⁾

- 해학적 요소

소설 원작에서는 무거운 주제의식으로 인해 전혀 해학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원작에서 볼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빈번히 만나게 된다.

영달은 특히 해학적으로 그려진다. 읍내에서 만난 농악대의 흥취에 젖어 익살스런 표정을 지으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는 장면, 알지도 못하는 초상집에 들어가 과장되게 거짓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는 몰매를 맞으며 내쫓기는 장면, 어깨를 구부정한 채로 허수아비를 들고 들판을 달린다거나 백화와의 입씨름 등에서 보이는 막무가내 같은 행태와 장난기, 거칠게 불러대는 노래 등에서 그것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다.

66) 김중철, 「소설의 영상화에 따른 대중적 변모에 대하여」, 『문학과 영상 2000 가을호』, 2000.

- 선정적 요소

대중적 요소로서의 선정성이란 피, 공포, 테러, 폭력 등과 관련되는 개념이다.⁶⁷⁾

영화는 원작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싸움 장면을 몇 차례 설정하고 있다. 우선 초상집에서 영달 일행이 거짓 문상객임이 밝혀진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매를 맞는 장면, 읍내에서 잠시 작부노릇을 하던 백화와 손님간의 다툼, 그들을 뜯어말리는 소란스런 장면들이 그렇다. 영달과 백화의 폐가에서의 정사 장면은 소설과는 전혀 다른 선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 감상적 요소

감상성의 개념을 인간 내부의 추억, 노스탤지어와도 관련지을 수 있다면⁶⁸⁾ 소설 「삼포 가는 길」 역시 그리움과 기다림을 이야기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근원에는 감상적 요소가 깔려있다고 하겠다. 상실한 고향 혹은 삶의 안식처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감상적 요소가 훨씬 부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작이 그리고 있는 고향 상실의 비애와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영달과 백화 사이의 애정과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인다.

정씨가 읍내에서 손님과 싸우던 백화를 부여안으며 통곡하는 장면이라든가, 영달이 읍내 장터에서 백화를 위해 물건을 고르면서 애써 율음을 찾는 모습, 백화와 이별하기 직전 대합실 벽에 기대어 흐느껴 우는 장면 등을 지나치게 길게 담아낸다. 영달이 눈물을 쏟으며 포와 떡

67)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324쪽

68) 박성봉, 앞의 책, 357쪽

을거리를 백화에게 건네주는 장면에서는 거의 신화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설의 영화화에서 첨가되거나 변형되는 이야기들이 대체로 대중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각색 영상물은 원작의 이야기의 일정부분을 대중적 성격으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소설의 영화화 과정에서 대중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것은 영화가 갖는 대중매체적 속성에 기인한다. ‘대중매체의 관중은 결코 하나의, 같은 부류의 완전한 통일체가 아니다’⁶⁹⁾ 이렇듯 불특정적이며 광범위한 다수의 대중들을 일시에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대중매체적 속성상 영화는 그들의 다양한 취향과 욕구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 익명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그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서와 성향, 즉 대중성을 의식해야하고 또한 의도하게 만든다. 이는 그만큼 영상매체가 대중적 이야기의 생산 가능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영상매체는 대중적 취향과 기호의 이야기 요소들을 적어도 소설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풍부하게 생산해 낼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소설작품의 수용에 있어 필연적인 전제가 되는 문자 독해를 위해서는 일정량의 응축된 에너지와 지적인 해독력이 요구된다. 반면 영상은 사물의 자연적인 외형을 표현의 기본단위로 삼기 때문에 교육의 정도나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지각되고 이해될 수 있다.⁷⁰⁾ 영상은 생생한 시각적 표현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의 재현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매체이다.⁷¹⁾ 그런 까

69) 존 A. 워커, 정진국 역, 『대중매체 시대의 예술』, 열화당, 1995, 19쪽

70) 박명진, 「영상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서울대 신문연구소 학보 198집』, 1981, 94쪽

답에 영상이 제공하는 시각적 이미지들은 대중들을 빠르고 강력하게 유인하고 몰입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3. 수업 모형

여기서부터는 수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활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수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18종 교과서중 지학사 문학(상)의 IV. 서사문학의 수용과 창작-작품읽기 1 「삼포 가는 길」을 활용한다. 이 작품의 ‘고향 상실’이라는 주제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발췌돼 소개되었기 때문에 지학사 교과서를 선택한다. 지학사 교과서는 소설의 시작부터 영달과 정씨의 동행, 백화와의 만남까지의 전반 부분과 세 사람의 동행부터 결말까지의 후반 부분을 수록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정씨의 입을 통해

“삼포에 갈까 하오.”, “내 고향이오.”, “한 열 집 살까? 정말 아름다운 섬이오. 비옥한 땅은 남아 돌아가구, 고기두 얼마든지 잡을 수 있구 말이지.”

후반부에서는 백화를 통해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

71) 김영훈, 「영상시대로의 전환」, 『사회비평 18호』, 1998, 45쪽

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라는 대화들도 고향의 따스함을 보여주다가 결말의 정씨와 노인의 대화를 통해 고향 상실을 보여주는 이 소설의 ‘고향 상실’이라는 주제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

수업 모형은 교수학습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설 교육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과정 중심으로 읽기 전, 읽는 중, 읽기 후의 3단계로 설정해 각 단계별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 영화는 철저한 보조 교재로 사용된다. 소설의 묘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보기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화는 소설 묘사부분에 대응하는 정지 화면과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 편집 장면으로 보여준다.

1) 읽기 전

읽기 전 학습은 배경 지식을 조성하거나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읽기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읽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존 신념을 재검토하게 하고, 책 속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확장하게 하며, 또한 문학 작품에 대한 심미적인 반응을 고양하게 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등장인물이 겪게 될 사건들에 관해 미리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등장인물과 더욱 깊이 교감할 수 있게 된다.⁷²⁾

읽기 전 활동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연상하기와 예측하기 활동

72) 조은희, 「영화를 활용한 소설 「장마」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인제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5

이며 효과적인 읽기를 위해 선행 지식을 회상하고 그것을 활성화함으로써 글 속에 들어 있는 정보와 교섭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교수자는 수용자인 학생들에게 소설 「삼포 가는 길」을 읽어 올 것을 지도한다. 또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을 조사해 오게 한다. 당시의 경제상황과 군부독재 하의 사회·정치적인 상황까지를 포괄하도록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당시 농촌의 몰락과 수출 주도 경제의 어두운 면을 파악하게 해서 작품의 시대·사회적 배경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이끈다. 2~3명의 학생에게 짧은 동안의 발표를 유도, 많은 학생들에게 시대적인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교수자는 또 수용자들에게 영화가 수업 보조 교재로 활용될 것임을 알려 읽기 전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해 자발적으로 배경 지식을 쌓도록 이끈다. 여기서 교수자는 작품의 시대 사회적인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작품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설명한다. 배경을 파악한 학습자는 작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작품의 접근과 이해가 힘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수자는 소설의 주제와 인물 성격 그리고 사건과 배경을 중심으로 소설 각 부분을 즉각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영화의 화면을 25분 분량으로 편집해 준비한다.

2) 읽기 중

읽기 중 활동을 통해서도 작품의 주제 인물 사건 배경에 수요자의 주의를 집중시켜 글의 중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거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수용자들의 읽기 전 활동 발표와 교수자의 보강

설명으로 1970년대의 시대·사회적인 소설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 이런 배경 속에서 작가가 소설을 통해 어떤 현실을 반영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작가가 이런 현실 속에서 당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고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향’을 꿈꿨는지를 소설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설명한다.

(1) 인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과 작품 속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인물들의 행동과 인물 간의 갈등이 사건을 이끌어가고 이들 인물을 통해 주제가 드러남을 깨닫게 한다. 작품 속에서 정씨와 백화는 ‘고향 회귀’라는 꿈을 가진 인물이다. 반면 영달은 찾아갈 고향도 없는 꿈도 꾸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의 인물이다. 꿈을 꾸는 자들과 꿈조차 없는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그 꿈의 상실이 가져오는 절망을 보여준다.

소설은 영달과 정씨 백화가 가진 것 없는 자들임을 묘사하고 있다. 교수자는 영화의 장면들을 활용해 등장인물들의 처지를 요약 전달할 수 있다.

영화 속의 영달은 옷도 채 걸치지 못한 속옷 차림으로 화면 안으로 뛰어들고 한겨울의 눈벌판에서 옷을 챙겨 입으며 달랑 남은 푼돈을 꺼내본다.



영달의 처지는 1970년대 경제 부흥기를 견뎌낸 수많은 민중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다. 당시의 소외계층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는 달리 가진 것도 꿈꿀 것도 없는 그야말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작가는 영달을 통해 소외계층의 현실을 묘사했고 영화는 속옷 차림으로 화면에 뛰어 들어와 뽀뽀를 꺼내 보이는 영달을 통해 그 시대 소외계층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영화의 중반부 고향이 다시 대화의 소재로 떠올랐을 때 영달은 ‘고향’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철저히 소외된 자의 현실을 과장되게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정씨는 가진 것 없고 교도소까지 다녀온 사람임을 암시하지만 꿈을 가지고 있었다.

“다 좋은 데서 가르치고 내보내는 집이 있지.”

“나두 그런 데나 들어갔으면 좋겠네.”

정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라두 쉽지. 하지만 집이 워낙에 커서 말요.”

“큰집…….”

정씨는 말수는 적지만 길에서 만나는 영달과 백화를 이해하며 감싸려는 사람이다. 그에겐 ‘고향’이라는 찾아갈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꿈의 상실은 그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만든다.

영화의 정씨의 성격은 더욱 강조되어 나타난다. 20살가량의 백화에게서 10년 전 고향에 남기고 떠나야 했던 딸을 떠올리며 장터에서 딸을 위한 고무신을 사고 새로운 삶을 위한 백화와 영달의 뗏어짐에 집중한다. 모두 고향을 찾는다는 꿈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영화는 이런 정씨의 고향 회귀를 강조함으로써 고향 상실의 충격의 정도를 강화한다.

소설 속에서 백화는 술집을 도망 나온 가진 것 없는 여자임을 묘사한다.

“아저씨네는 뭘 갖구 다녀요? 망치나 톱이겠지 머. 요 속에는 헌 속치마 몇 벌, 팬티, 화장품, 그런 게 들었지요. 속치마 꼴을 보면 내 신세하구 똑같아요. 하두 빨아서 빛이 바래구 재봉실이 나들나들 하게 닳아 끊어졌어요.”

영화는 백화가 들고 있던 가방을 눈 위에 쏟아내며 백화의 한심하고 보잘 것 없는 신세임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상상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준다.

소설 속의 백화는 이렇게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처지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 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그리고 백화는 언제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이며 자신의 실체를 밝히고 기차에 올라탄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러나 영달의 말을 통해 백화의 기대와 꿈이 헛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젯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구?”

“아뇨 백화란 여자 말요. 저런 애들……한 사날두 시골 생활 못 배겨나요.”

그러나 영화는 영달의 대사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대신 직접적인 보여주기로 희망의 상실과 현실에의 함몰을 보여준다. 영달의 도움으로 서울행 표와 먹을거리를 받아들이고 플랫폼으로 들어섰던 백화는 영달과 정 씨가 떠난 대합실로 돌아온다. 그리고 백화는 아련한 눈길로 대합실 밖의 술집을 바라본다. 영화는 직접적으로 백화에게서도 고향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수자는 이를 통해서 수용자들이 인물들의 성격과 처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작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또 이와 함께 등장인물을 수용자 자신과 대비시켜 ‘영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정씨처럼 절망해야 한다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등을 스스로 물어보며 타인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2) 사건

사건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다. 사건이 유기적이지 못하게 뒤엉키거나 지나치게 약하면 작품을 따라가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영달, 정씨, 백화, 이들의 동행은 주요 사건이다. 동행과정에서 보이는 스스로의 내적 갈등과 등장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다.

소설 속의 영달과 정씨는 일단 동행에 나선다. 이들의 동행은 가진 것 없는 소외자들의 동행이다. 영달은 처음에 정씨를 경계하지만 동행과정에서 서로의 처지의 이해를 이끌어낸다. 또 둘의 동행중에 백화의 합류로 소외계층의 대동행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동행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하나 됨을 만들어내지만 이들의 동행의 앞길이 밝지 않음을 드러낸다.

그들은 얼어붙은 강을 건넜다.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눈이 올 거 같군. 길 가기 힘들어지겠소.”

소설 작가는 이런 묘사와 대화를 통해 이들의 동행이 순탄치 않고 결국은 아무 것도 없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교수자는 이런 예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며 이해를 돕는다. 영달, 정씨 그리고 백화의 앞길에 엄청난 눈보라를 몰아들이며 이들의 전진을 방해한다.



소설 속에서 영달과 백화의 가까워짐도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빼었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영화는 백화를 업은 영달과 정씨의 동행을 한 장면으로 보여주며 이들의 하나 됨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준다.



인물의 내적 갈등을 치중해 묘사하는 소설과 달리 영화에서는 영달과 백화 간의 외적 갈등이 폐가에서 극적으로 보인다. 영화의 극대화된 인물 갈등을 통해 소설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다.

(3) 배경

배경은 작품 이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시대 사회적인 배경의 이해 없이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하기 힘들어진다. 이 작품 역시 발표 당시 배경인 산업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소외된 소외계층의 한과 상실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소설의 배경은 황석영 작가의 뛰어난 묘사로 설명된다. 소설 발표 당시 리얼리즘 강한 민중문학을 뛰어넘어 수려하고 시적인 묘사가 돋보

이는 작품답다.

당시의 이농현상을 보여주기 위해

길가에 퇴락한 초가 한 칸이 보였다. 지붕의 한 쪽은 허물어져 입을 벌렸고 토담도 반쯤 무너졌다. 누군가가 살다가 먼 곳으로 떠나간 폐가임이 분명했다.

고 설명하고 있다. 또 소달구지가 다닐 만한 길, 청솔 연기 냄새 등으로 1970년대 농촌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영화는 중반부 영달 정씨 그리고 백화가 쉬어가는 폐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포장된 대로 한번 나타나지 않는 시골 풍경과 시골마을과 장터 그리고 대합실 등의 사람들의 궁핍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음으로써 당시 농촌의 빈한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4) 주제

작품의 주제는 작품을 밀도 있게 읽고 사건, 인물, 배경을 이해했을 때만 파악이 가능하다. 인물간의 갈등, 사건 그리고 작품의 시대·사회적 배경이 서로 어우러져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시킨다.

교수자는 이 작품의 주제 파악을 위해서 소설 속의 아래 부분을 강조한다.

“삼포에 갈까 하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말했다. 영달이가 고개를 흔들었다.

“방향 잘못 잡았수. 거긴 벽지나 다름없잖소. 이런 겨울철에.”

“내 고향이오.”

사내가 목장갑 낀 손으로 코 밑을 쓱 훑쳐냈다. 그는 벌써 들판 저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달이와는 전혀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그는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영달이는 또 다른 곳으로 달아나는 길 위에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 …… 집에 가는군요..”

를 통해 고향을 떠올리고

“뭐 …… 왜가는대루. 그런데 삼포는 어느 쪽입니까?”

정씨가 막연하게 남쪽 방향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남쪽 끝이오.”

“사람이 많이 사나요. 삼포라는 데는?”

“한 열 집 살까? 정말 아름다운 섬이오. 비옥한 땅은 남아 돌아가구, 고기두 얼마든지 잡을 수 있구 말이지.”(전반부)

“말두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뭇 땀에요?”

“넌들 아나, 뭇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대.”

(중략)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뭤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후반부)

교수자는 전반부의 정씨와 영달의 대화를 통해 고향이 유토피아적으로 묘사하지만 유토피아적 고향 ‘삼포’는 후반부에 등장한 노인의 입

을 통해 철저히 유린당한 현실로 급변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묘사만으로는 영상의 충격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정씨가 받는 상실의 충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기는 힘들 수 있다. 이를 보강 설명하기 위해 교수자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 정지화면과 편집화면을 활용한다.



노인의 말로 전해지던 것을 화면으로 직접 보여주며 정씨의 ‘고향 회귀’의 꿈의 상실을 더욱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정씨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완전히 변한, 고향 삼포의 모습을 눈으로 실감한다. 소설 속에서 노인의 말로 전해지던 현실이 화면을 통해 즉각적으로 보여주어 등장인물 정씨의 ‘고향 상실’의 상처를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소설에서 글로 표현된 것을 상상하며 억지로 이해하려던 정씨의 고향상실의 상처를 교수자가 제공하는 화면을 통해 정씨의 놀람과 실망의 표정과 변화의 현실을 화면으로 봄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몇 번의 충격적인 장면과 정씨를 연기한 김진규의 열연으로 소

설의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1970년대 경제부흥기 고향을 꿈꾸고 상실하는 소외계층의 상처의 정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은 인물의 갈등을 통해서도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소설은 시작하면서부터 영달이 갈 곳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인물임을 설명한다.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중략)

“댁은 오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 왔었소? 언제나 마찬가지죠.”

교수자는 이를 통해 영달은 가야할 곳도 갈 곳도 없는 인물이고 품팔이를 위해 이곳저곳 공사판을 떠도는 부랑자임을 설명한다. 1970년대 개발기의 소외된 사람들의 전형인 것이다. 영달이 갈 곳이 없음은 정 씨가 그렇게 꿈에 부풀어 찾아가던 고향이 결국을 상실 됐음을 작가는 일찌감치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3) 읽기 후

글을 읽은 후에는 그 작품의 이해가 내면되고 새로운 사고와 인식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읽은 것은 되돌아보며 정리하여 완전히 내면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소설 읽기를 끝내면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도록 유도한다. 영화 전체를 감상함으로써 작가가 전하고자하는 주제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작품의 내면화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것이다. 교수자는 아래의 방법 등으로 수용자들이 인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를 파악하고 그 이해가 수용자에게 내면화되도록 이끈다.

(1) 인물들의 상황과 서로가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세 사람 모두 산업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작품 속의 영달과 백화는 도망자라는 공통점을, 정씨와 백화는 고향을 찾아간다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 소외계층이며 도망자이고 포근한 느낌의 고향을 찾아간다는 공통점들이 이들이 첫 동행에서 급속도로 하나 될 수 있는 배경이었음을 이해시킨다.

(2) 작품의 계절 무대 배경 등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겨울이 계절적 배경으로 설정된 것은 등장인물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피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상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 농촌을 지역적 배경으로 만든 것은 산업화에 따른 농촌경제의 피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폐가 등은 당시 산업화 지역으로의 이농현상을 강조하기 위해 보여 지는 것임을 설명한다.

(3) ‘삼포’라는 지명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삼포’는 한반도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지명이다. 작가는 이 허구의 지명을 통해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강조하고 있다. 교수자는 이 허구의 지명을 통해 작가가 ‘고향 상실’을 얘기하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4) 산업화에 따른 소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 작품의 산업화에 따른 소외는 지속되고 있으며 풀어내어야 할 숙

제임을 수용자들이 이해했는지를 파악한다.

(5) 창조활동

소설의 결말에 대해 토론하게 하고 작가가 이런 결말을 이끌어낸 이유를 생각해본다. 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특히 기차를 타고 떠난 백화의 뒷이야기, 고향을 상실한 충격의 정씨의 행로, 찾아갈 고향도 없었던 영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만들도록 한다. 또 수용자 각각에게 영달, 정씨, 백화의 역할을 부여하여 그들의 눈에서 바라본 타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교수자는 읽기 후 활동을 통해 상상력의 신장을 유도하면서도 획일적이거나 지나치게 가볍게 처리되지 않도록 경계해야한다. 또 완성된 새로운 결말을 가지고 토의를 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생각을 알아보게 한다.

IV. 결론

이제 문학의 생산과 소비는 책이라는 형태와 더불어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⁷³⁾ ‘영상소설’⁷⁴⁾이라는 용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컨대 소설도 마찬가지로의 길을 걷고 있다. 다양한 매체들이 이끌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문학작품이 언어라는 제한된 매체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로, TV나 영화라는 양식으로 전환되어 새

73) 요아힘 페히. 임정택 역, 『영화와 문학에 대하여』, 민음사, 1997, 6쪽

74) 김성곤, 「영화- 텍스트의 이동인가 문학의 확장인가」, 『외국문학 분호』, 열음사, 1993

로운 문학적 체험을 마련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긴급하다. 대량 전달 매체의 활약과 다양한 요소들의 성행이 수용자의 취향과 수용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 한 문학 역시 변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설의 영상화란 소설의 완결된 이야기 구조와 영화가 발휘하는 대중적 요소와의 결합을 의미한다. 문학이 창작자 개인 혹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이상, 그 문학적 성취나 예술적 경지를 보다 광범위한 계층의 대상이 수용하고 섭취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소설의 가장 강력하고도 유효한 유통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상이 보유하는 대중 친화력과 그것이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대중 흡입력을 통해 소설은 대중적 소통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서사 기술물인 소설은 사건을 시간의 흐름 혹은 공간의 이동 등을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적절한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위해 시간의 흐름을 정지시키거나 역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서사물의 전체성, 자기조정, 변형이란 속성은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⁷⁵⁾ 이런 점에서 두 장르의 서사 구조에서의 유사성은 영화가 소설을 분석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즉 소설 작품에 대한 꼼꼼한 읽기를 강조하여 텍스트 분석과 텍스트에 대한 문제 제기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영화를 통해서도 이런 해석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영화나 소설 모두 의미를 발생하여 해독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고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⁷⁶⁾

75) 허애리, 『영상매체를 활용한 소설교육-서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43쪽

76) 문자텍스트가 생각을 통해 이미지를 얻어내는 반면 영화는 주로 이미지를 통해 사고를 창출하는 점에서 다르다고 본다. 영화가 이미지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악, 대사, 심지어는 문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문자 텍스트보다 오히려 그 의미가 풍요로울 수 있다.- 심경석,

이 논문은 소설교육에 영화를 활용,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매체를 끌어들이어 흥미를 유발시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시키고, 그들이 익숙한 영상을 통해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 또래들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영화를 감상한 후 서로 토의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있으며 이런 활동이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았다.

소설을 통한 교육적인 효과⁷⁷⁾는 첫째, 언어를 표현 재료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언어 능력의 증진에 효과를 주고, 둘째, 인간의 삶을 다룸으로써 소설을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만남으로 개인의 정신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셋째, 개인적 주체성 확립에 도움이 된다. 넷째, 문화 계승과 창조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소설의 교육적인 효과는 시대 사회적인 환경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설이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과 함께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꾸준한 소설 독자의 확보를 통해서만 그 생명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소설 교육 강화를 위해 영화를 교육 현장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도 소설 독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소설 교육 현장에 영화를 보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수용자인 청소년들이 소설을 좀 더 쉽고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우선 즉각적이고 입체적인 영화의 영상들을 통해 소설 속에 나타난 시대·사회·경제적인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소설 속에서 작가의 묘사로 나타났던 인물의 성격과 갈등 등이 영화에서는 화

『영화보기 읽기와 영문학 교육』, 『영미문학연구회 편-안과 박 제 13호』, 창작과 비평사, 2002, 125~127쪽

77) 김대행,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38~56쪽

면 속의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 등으로 직접 드러나 청소년들이 실제 인물들을 보는 것처럼 친숙하게 받아들임을 보았다. 또 소설 작가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영화의 화면에서 연기자의 연기와 현실적인 영상으로 나타남으로 즉각적으로 이해됨을 알았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설의 묘사를 대신하는 영화의 장면, 시대·사회적인 배경을 보여줄 수 있는 화면, 그리고 소설 작가의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을 보여주는 편집영상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영상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쉬운 이해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는 매체’, ‘보는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영화를 교육의 보조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흥미를 키워 소설의 형식과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다른 매체로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활동이 문학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문학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영화를 활용한 소설 교육은 원작과 각색된 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소설과 영화의 공통점을 적극 이용하여 소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즉 소설의 구성이나 줄거리가 영화를 통해 독자에게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을 통해서 그 변형된 이유를 매체 특성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직접 탐구하게 함으로써 탐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영상을 통한 간접적인 문학체험의 기회는 인간 교육, 문화 교육 차원에서 소설 교육으로써의 가치가 있다.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고 타인의 삶을 보면서 자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영상은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대신 삶에 대한 고찰을 방해할 수도 있다.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상상력이 저하되고, 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창의력

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영화는 소설 교육에서 단순한 보조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 자칫 영화를 주 교재로 오해시킬 경우 영화만 보고도 소설 원작을 읽는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소설 교육에 영화를 활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다. 보조 수단인 영화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수용자인 학생들이 원작에 대한 이해나 연구 없이 영화만으로 소설을 이해했다는 포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소설은 영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한 것들을 표현하는 그만의 독특한 표현능력과 깊이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독서는 끊임없이 권장되어야 하며 영화를 소설 교육에 활용할 때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보조 자료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영화를 활용할 경우, 수업 시간 등을 고려해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의 부분이나, 인물, 배경, 사건의 중요한 부분만을 설명하기 위해 편집 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수업에 알맞은 영화의 정지, 편집 화면을 마련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 수업 시간에 교과서 수록 소설을 교육한 후 청소년들에게 집에서 영화를 보게 한 후 다음 수업 시간에 토의를 통해 수용자들의 이해를 점검하고 보충 설명해 이해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점에서 소설이 영상화된 형태를 살펴보고 학생 스스로 소설의 한 부분을 영상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제안해 본다.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② 국어』, 2008.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문학' 과목』, 1997.

황석영, 소설 『삼포 가는 길- 세계문학전집 125』, 민음사, 2009.

한국영상자료원, 영화 『삼포 가는 길』, 2009.

2. 학술지

김대행, 「문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문예중앙, 가을호》, 1994.

_____, 「매체 언어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97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김성곤, 「영화- 텍스트의 이동인가 문학의 확장인가」, 《외국문학 봄호》, 열음사, 1993.

김영훈, 「영상시대로의 전환」, 《사회비평 18호》, 1998.

김중철, 「소설의 영상화에 따른 대중적 변모에 대하여」, 《문학과 영상 2000 가을호》, 2000.

나경순, 「매체의 활용과 작문 교육」, 《국어교육연구 제8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1.

박명진, 「영상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서울대 신문연구소 학보

- 198집》, 1981.
- 박삼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문학교재의 개발방향」, 《문학과 교육》, 문학과 교육연구회, 가을호, 1998.
- 심경석, 「영화보기 읽기와 영문학 교육」, 《영미문학연구회 편-안과 밖 제 13호》, 창작과 비평사, 2002.
- 우한용, 《매체 언어의 회고와 전망》, 교과교육학연구, 1999.
- 우한용 외, 「소설교육의 이념과 방법」, 《어문논총 15집》, 전남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4.
- 이종철, 「대중매체의 언어메시지 교육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제 8집》, 1998.
- 이경화, 「학교교육으로 매체 교육을 실행하는 방안」, 《한국어문연구 제9집》
- 최장섭, 「초 중 고교생을 위한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 개발 연구」, 《신문연구 제31호》, 1980.

3. 학위논문

- 강현주, 「영화를 활용한 소설교육 연구-오발탄을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문준호, 「소설교육 방법론 연구-텍스트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박경일, 「영상매체 시대의 소설 교육의 방향」,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기범, 「영화의 문화 교육적 수용 연구」, 한국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1.

- 백형숙, 「영상매체를 활용한 소설 지도」,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사영미, 「읽기 학습의 영상매체 활용 교과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설연희, 「소설과 영화의 표현양식 비교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양수중, 「영상매체를 활용한 소설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한국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유성부, 「영상매체를 통한 소설 감상 교육의 효과분석 연구」, 서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윤미, 「국어과 매체 교육의 개선 방안-영상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장진석, 「영상매체를 통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영화매체를 활용한 소설 교육의 방법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장진희, 「영상매체를 통한 소설 교육 방안-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바탕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조은희, 「영화를 활용한 소설 장마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인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한진주, 「매체 활용을 통한 소설 교수 학습 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허애리, 「영상매체를 활용한 소설교육-서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 단행본

- 구광본, 『소설의 미래』, 행복한 책읽기, 2003.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88.
- 김대행,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김동훈, 「영상매체를 활용한 국어과 수업」, 『연가내기의 영화교실』, 컬처라인, 2003.
- 김성곤, 『문학과 영화』, 민음사, 1997.
- 김중신, 『한국 문학교육론의 방법과 실천』, 한국문화사, 2003.
- 김중철, 『소설과 영화』, 푸른사상, 2000.
- _____, 『미디어 교육론』, 나남, 2000.
- 남완석, 『문학작품의 영화화-역사적, 이론적 고찰』, 뷁하너와 현대문학, 1999.
- 마르셀 마르땅. 황왕수 역, 『영상언어』, 다보문화, 1993.
-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 박인기,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2004.
- 요아힘 페히. 임정택 역, 『영화와 문학에 대하여』, 민음사, 1997.
- 우한용 외, 『소설교육론』, 평민사, 1993.
- 정현선,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역락, 2004.
- 조셉 보그스. 이용관 역, 『영화보기와 영화읽기』, 제3문화사, 1995
- 존 A. 워커. 정진국 역, 『대중매체 시대의 예술』, 열화당, 1995.
- 최인자, 「영상 서사물의 해석 방법」, 『서사문화와 문학교육론』, 한국문화사, 2001.
-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서울:삼지원, 1996.
- L.자네트. 김진해 역, 『영화의 이해』, 현암사, 1993.

ABSTRACT

The research of novel education method with movies

Chae sung hee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 Shin Women's University

Our description experience which emphasis on letter media in the past is changing to image media as movies.

Now, Our description experience is substituted watching movies that is organized image and sound for reading the novel in printing media.

Therefore, it is substitute impression by image media like movies etc. for impression by novel.

Students are depended on videos, movies just like audio-visual media more than printing, it is a social condition to compose the novel education.

A literary work can use for the study also, as an accepting way the production is not inclined to lecture-reading but

various way, it is well-timed to research about literature education which realated to image media.

If students meeting the novel works to movies, they can receive effective novel education caused by amusing attitude.

Infection of image media is sure to effective because of audio-visual effect and amusement. Also, image media are used effectively, to understand students about different between novel and play.

In this point of view, using movies to novel education is correspond with media environment and can serve our students as substantial assistance.

Now, this research through the reading strategy of before reading after reading shows as the way movies apply the method to concrete study.

The novel education method with movies is confirmed there effect and possibility consequence of reading study method.

However, for depending researching and examining articles are grounded in this research, I suggest like this.

We need to teacher's effort to maintain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rinting and image media.

The teacher have to carefully select the movie data to help understanding, after these effort are attended, it will be effective novel education.

Also, I hope publish various follow-up research that can apply to student.